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社說

稅制整理案

社會政策的意味缺如

一

滿洲事變以後 日本이 政治上 外交上 重大한 時期에 逢着한 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財政上에도 重大한 時期에 際會한 것은 平均 十五億을 內外하든 豫算이 年年 二十餘億圓을 計上하게되것으로 보아도 넉넉히 알수잇다。特히 廣田內閣이 成立한 後로는 一層 財政의 膨脹을 必要로하야 明年度豫算에는 三十餘億圓이라는 未曾有의 膨脹豫算을 나타내게 되엇다。그뿐아니라 이 膨脹豫算의 大勢는 今後 相當한 期間을 繼續할것이므로 從來의 財政政策으로는 能히 當할수가 업서 不得已 公債를 增發하는 以外에 稅制를 改正하야 稅의 收入을 增加하고 써財政의 膨脹을 圖謀하게되엇다。今番 稅制改正의 理由는 여기에 잇다。

二

稅制改正의 理由가 여기에잇는지라、一般으로 增稅가 될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今番 內閣의 重要使命의 하나인 國民生活安定의 趣旨가 이稅制改正에徹底하지못할뿐아니라 도리혀 一部에서는 國民負擔의 過重을 招來한 感이잇슴은 注目할거리다。

첫재 今番 稅制改正의 根本方針은 (一)國稅에 잇서서는 所得稅를 直接稅體系의 中心으로삼고 收益稅及 財産稅는 補助稅로하얏스며 (二)所得稅는 個人에 比하야 法人에 重課하야 第二種所得의 源泉課稅를 廢止하고 第三種所得으로서 綜合課稅로하얏스며 (三)所得稅를 補助할 現行收益稅制度의 整備를 圖하기위하야 國稅인 地稅 營業收益稅 資本利子稅의 外에 家屋稅를 國稅로 移管하얏스며 (四)所得稅의 第二次的 補助策으로서 輕微한 財産稅를 創設하야 直接稅의 體系를 附與하얏스며 (五)負擔의 不均衡是正과 收入增加를 하기위하야 資本利子稅 相續稅에 對하야 相當한 程度의 增徵을하고 (六)負擔의 均衡과 彈力性잇는 稅制를 確立하기위하야 새로 流通稅로서 有價證券移轉稅 賣上稅를 創設한 것은 適當한일이오 合理한 일이다。

三

그러나 第二種所得稅의 源泉課稅를 廢止하고 第三種所得으로서 綜合課稅를 하면서도 大優遇策을 講究하야 國債及 預金利子에 對하야 納稅義務者가 申請한 境遇에는 利子支拂의 際에 課稅할수잇는 源泉的 比例稅를 認定하기로 되어잇다。이것은 勿論 今後 巨額의 公債를 發하지 안흐면 아니될때에 國債消化와 銀行預金의 分散防止를 圖하는 公債政策上으로서는 不得已한 일일지나 當局이 企圖한 累進的 綜合的 課稅에 依한 大所得에의 追及과 負擔均衡의 實을 擧치 못할것이 아닌가。即 大金額預金者와 國債所有者는 利子를 끄러내지안코 蓄積만하면 언제든지 이 稅制미테서는 稅金을 免할수잇슬지니 아룽만 조흔 綜合課稅가 될것이오 딸하 그들의 合法的으로 脫稅하는 結果를 나타내지 안는가。

四

다음 營業稅의 免稅點을 四百圓으로부터 六百圓으로 引上한것은 中小商工業者를 保護하는 意味에서 合理的이나 가長地位에잇는 地稅에 잇서서는 極小地租免稅의 範圍를 認定했슬뿐이오 地稅의 一般的 稅率을 現行대로 두엇슴은 農村窮乏을 떠드는 今日 不合理하지 아니한가。第三種所得稅에 잇서서 從來의 免稅點 一千二百圓으로부터 一千圓으로 引下한것은 도리혀 朝鮮에 잇어오는 感을 주거니와 이것은 俸給生活者 即 勤勞生活者에게 莫大한 打擊이 아닐가。特히 一般大衆의 消費品인 酒、織物、砂糖等에 對하야 一割 乃至 六割의 增稅를 하는것은 國民生活을 脅威하는것이라 아니할수업다。賣上稅는 大百貨店과 三萬圓以上 賣上하는 大商店에 課하므로 中小商工業者에게는 打擊이 업스나 그만치 物價를 올리면 消費稅인 國民大衆에게 影響될것이 아니랴。

五

그럼으로 地方稅制의 改正을 보면 現在의 地方稅總額 六億五千餘萬圓中 初年度에 二億二千萬圓 平年度에 二億九千萬圓의 輕減을 圖한다하니 爲先 農村疲弊를 부르짓는 此際 農村의 負擔 일것이다。더욱 朝鮮에서의 戶別稅附加稅에 當하는 戶數割을 廢止하는것은 農村負擔輕減의 一助가 될것이며 그 財源의 補塡策으로서 國庫의 地方交附金制度 創設、所得稅의 一部及 資本利子稅를 市町村의 財源으로 移附하며、市町村立學校 敎員俸給을 道府縣에서 負擔하는것等은 朝鮮에서도 速히 實施하기를 希望하는 適當한 方策이다。오즉 그것이 彈力性잇게 運用될가가 疑問될뿐이다。

十萬居留民保護上 自由手段을行使

中國側의取締는미들수업다

大使館當局重大發表

【上海廿四日發同盟】廿四日午前零時廿分 大使館當局은 談話形式으로 다음과가티 重大한發表를하엿다

하지못하며 이제는 中國側의 排日取締處置에 信任할수업다此際에 남어잇는 唯一한 手段은 在中十萬居留民의 生命財産을 保護하기爲하야 適當한 自由手段을取하는 外에 아모道理가업다고 認定한다

(寫眞은 川越大使)

陸戰隊安民布告

【上海二十四日發同盟】日本陸戰隊는 二十四日午前三時四十五分 如左히 安民布告를 公布하엿다

大日本帝國海軍陸戰隊 非常警戒布告

日本陸戰隊 今回行動은 自衛權 發動에依한것이여서 그目的은 專혀在留日本臣民의 生命財産을 保護하는것에잇고적어도 日本官憲을 敵視하고治安을 攪亂시키는것에 對하여는 寸毫라도 容恕할수업다 賢明한 全市民衆은 모름지기 日本陸戰隊의 眞意를 明解하고 妄動함이업시 安堵하야 그業에 從事하기를 希望한다

昭和十一年九月二十四日

日本特別陸戰隊隊長 近藤英次郎

重傷者 出利葉水兵은 全治二個月을要할 兩腕貫通銃創 輕水兵은 左腕骨貫通銃創 兩者共히 뼈가紛碎되여서 全治後도 不具는 免치못한다

事件背後關係 眞相探究에努力

外務當局極度로憤慨

【東京電話同盟】上海陸戰隊員狙擊事件에對하야 外務當局은 極度로憤激하고 十四日午前八時半부터 省內幹部會를開催 陸海軍兩省의公電을 基礎로하야 種種協議하고 繼續하야 海陸兩當局사이에 重要打合을行하엿다 그리고昨年十一月中山兵曹事件을發端으로하야 汕頭甲出巡査狙擊事件(本年一月) 上海萱生事件(七月) 長沙爆彈事件(八月)及 最近成都、北海、汕頭、漢口、上海各事件等 各地에 頻發하고잇는데此等事件은 모다同一組織下에 매우計劃的으로 進行되여잇는것이明白하엿다 中山、萱生、漢口、上海各事件을通하야 그暗殺手段은 全然同一手法으로 相當히訓練을바든共通한大規模的 組織的行動인것이 明白하야 此를放置하면 今後同種事件이 頻發할憂慮가잇다 今回 上海事件은 犯人의一人이 逮捕되여잇스나 그取調한結果 從來推測에 不過하엿던 背後關係가 明白히되고國民政府、國民黨乃至그 그行動背後에잇는 一大組織體이 判明될터인고로 外務當局은 此等犯人의 取調進捗에 依하야 日中關係에 間隙이 生함을 機會로側面的排日氣運을煽動하야 日中正面衝突을 惹起시킬라고하는 某某方面의 全貌도그間에 暴露될것이라는 嫌疑가相當히 濃厚化하게되엿다 日本當局은 重大한 決意를 示하는一便 背後關係探究에 努力을 기우리고잇다

田港水兵의 死體檢視發表

【上海二十四日發同盟】田港一等水兵의 死體를 檢視한結果 如左히 發表하엿다

第一彈은 左背部로부터 들어가 腹部를貫通 銃創

第二彈은 上肩部로부터 들어가 貫通 銃創

第三彈은 左腕肘關節을 銃創

現實、純理派對立 聯盟、分裂危機!

伊國의비위마출必要업다고 蘇聯代表、强硬히主張

【쥬네브二十三日發同盟】審査委員會는 에디오피아代表의審査에 對하야 常設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하기로 決定하엿다 右決定을 契機로 聯盟總會는 바야흐로 現實派와 純理派의 各陣營이 分裂危機에 直面하게되엿다 佛國代表 델보스外相은 現實派의 立場에서 伊太利政府의 協力을 確保하야 歐洲新平和機構設立을 企圖하고 잇는데 小國代表는 聯盟本來의 使命을 固執不讓하야 뭇소리니首相의비위를 마추기보다 聯盟小國의權益을 保全하기에 汲汲하고잇다 그間에잇서서 蘇聯代表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도「特殊事態를考慮하지안코 聯盟本來의 使命을 遂行하다」고 稱하야 現實派의總帥 佛國代表와 正面衝突을 演出하고잇다 特히二十二日審査委員會의席上에서 聯盟總會에서 某國代表는 伊太利政府의協力을 確保치안흐면안된다는意見을 堂堂히述하엿스나 遺憾이나마 自己는 이에同意할수업다 伊太利政府를 불러올必要가어데잇는가 하야佛國代表를 詰難하엿다고 傳한다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이 從來의方針을 放棄하고 每事에 佛國政府와對立하게된 裏面에는 相互援助條約에基한 行動에 佛國政府가 消極的인結果라고觀測되며 더욱 獨逸經濟相 샤하트博士及 波蘭敎育總監리즈스미그리將軍이 뒤이여 巴里를訪問하엿슬際 佛國政府가 右會議內容을 逐一蘇聯政府에 報告치안흔데對한 報復手段이라고도하는一方 英國代表이든外相은쥬네브에進出한以來 佛國代表를全的으로 支持하엿스나 何故인지委員會에서는 極히 冷淡한 態度를 示하야 델보스外相이 窮地에陷하드라도「我不關焉」의態度를取하엿다는바 에디오피아代表가大國의權益을 牽制하고 잇는것을보고 小國群은 크게氣勢를올리고잇다 特히 西班牙代表가 總會席上에서 內亂에對한各國政府의 干涉을 惹起하지안흘가 觀測되는바 何如든 聯盟總會는 一波瀾을免치못할形勢이다

日中國交調整의 歷史的難點을 一擧解決意圖

日本要求에不應하면有効適切手段行使

陸海外三省會議

【東京電話同盟】上海陸戰隊員狙擊事勃發때문에件外務、陸、海軍三省會議는 二十四日午後一時부터 外務省에서 開催되엿다 桑島東亞局長、上村同第一課長、海軍省軍務局第一課長保科大佐、陸軍省軍務局關田大佐를 中心으로各關係官出席各各現地로부터의情報를 가지고 重要協議를行하엿는데

一、今回事件도 成都、北海、漢口에서勃發한 中國民衆의 組織的排日暴行과 全혀軌道를同一하는것으로 租界에潛入하야 兵士를殺害한것은 疑心할餘地가업다는 見解下에 此際에 다시全中國의 排日掃蕩에 一層努力할것을痛感하므로

一、南京日中交涉은 益益그重要性을 增大하게되엿다 따라서 此際에 日本으로는 中國側의 蒙을戒하야 排日의根源을剷斷하기에 다시 一段의拍車를加하엿고

一、南京本交涉을 제처노코 全中各地의 日本人의 生命財産이不斷히威脅되는 事態에잇서서는 日本政府는 自力으로라도그不測의災害를 豫防치안흘수업다

一、南京政府가 이公正妥當한主張要求에 對하야 아즉도 誠意업는 態度를 反省치안는다면가장有効適切한手段에 訴하야 그 猛省을促할것

一、日本居留民의 生命財産權益의擁護에 關하여는 一切現地軍憲의適切한 措置에 一任할것

以上三省會議의決定으로써 日本政府는 毅然 南京政府의態度를 監視하면서 局面에對應하야 適宜 萬全의準備를進行、日中國交調整의 歷史的難點을 一擧에解決하려는 嚴然한態度를堅持하고잇다

英國의介入排擊 蔣氏와直接交涉

南京에서交涉을遷延시키면

【東京電話同盟】日中國交調整交涉이 全面的으로 重大岐點에서게된此際 中國側이 英國政府를介入케하야 日中直接交涉을 妨害하려는 策謀가 잇다는 說이傳하야 注目을 끌고잇다 即廣東省行營에잇는 蔣介石氏가 最近者 英國香港總督 콜데코트卿을 訪問하고 何事인지 長時間 密談을 交하엿다는 情報는 日本外務省에도 入하엿는데 會見內容에對하여는 詳電이업고 日本側으로서는 南京政府가 如斯한 策謀를 放棄하고 一日이라도速히 日中國交調整本交涉에 誠意를 披瀝하야 解決의衝에 當하기를 希望하고잇다 中國一流의 局面展開策으로 一方에잇서 南京本交涉을 遷延식히고 他方에잇서 歐米依存政策을取하야 日本의氣勢를 눌러 當面을 糊塗하려는態度를 表示할時에는 斷乎南京政府의 猛省을促하고 特히蔣介石氏가 行政院長의 職責을갓고잇스면서 廣東에 逗留하야 張群外交部長이 一一히 蔣氏의 請訓을 必要로하는事態를 繼續할時에는 川越大使를 直接蔣氏에게派하야 蔣氏와直接談判을 試하기로하고 蔣氏의態度를 嚴重監視하기로 되엿다

英政府調停說否定

【倫敦二十三日發同盟】英國政府는 中國에서의 排日테로의 頻發로 日中交涉進展에 重大關心을示하고잇는데 英國은 南京交涉에仲裁者로서 進出할意向이라고 中國方面에서 傳한다는 風說에對하야 二十三日午前 이것을否定 非公式으로 다음가티말하엿다 英國政府는 日中交涉에 調停하려고 考慮한事實은 업다

米國務省緘口不言

【倫敦二十三日發同盟】上海에서 日本海軍水兵이 不逞中國人에게 狙擊을 當하야 死傷된結果 日米關係는 依然 緊張을 持續하게되엿다는 新聞通信이 入하야 即時全米에 傳播되엿는데 國務省當局은 二十三日夜에 이르러도 아직公式發表를 하지안코 따라서 아직 對策을 考慮중이라고 一切意見을 發表하야 如何한 態度를 取할는지 緘口하고 말치안는다

人事・集會

◀都甲岩太郎氏(朝鮮府支局行事務官) 新任人事次來社

◀荒井時三郎氏(總督秘書官) 新任人事次二十四日來社

◀天谷鐘二氏(同上) 同上

陸海軍兵力의 即時派遣要求

上海聯合緊急會決議

【上海二十四日發同盟】上海日本人各路聯合會緊急會議는 昭和七年上海事變當時와가티 後方勤務를 在留民이 分擔할것을 可決 如左히決議하고 午後二時散會하엿다

◇決議

中國人이 日本人에 對한 暴虐은 그極에 達하엿다 當局은 昭和七年上海事變때의停戰協定協約에 基한在留日本人의 生命財産을 完全히保護하기에 足한陸海軍兵力을 即時派遣하라

또 同會는 右決議를 政府그他關係方面에 打電하엿다

南遣部隊北海에進出

【臺北電話同盟】馬公要港部着電 南遣部隊司令의 報告에 依하면 嵯峨艦長으로부터 二十二日午前八時부터 北海의 現場調査를開始한다는 報告에 接하야 南遣部隊는 同日午前八時까지에 北海에 進出할터이다

自衛權發動決定

及川司令長官에回訓

【東京電話同盟】上海에發生한日本水兵의 殺傷事件에 關하야海軍中央部에서는 二十三日 深夜부터 二十四日 早曉까지 省部聯合會議를 開하고 重要協議를遂行한結果 惡性排日抗日테로行爲의絶滅을期하는同時에、在留日本人의 生命財産保護及 在中諸權益의擁護를 一하기爲하야 强力또 自衛權을即刻發動하기로 決定하고 即時 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의 御指揮를 仰하야 永野海相의 決裁를거처 海軍警備兵力의 增强을 行하기로되엿다 따라島田軍令部次長은 午前八時宮中에 參內하야 重大한統帥事項에 關하야 書類로써 天皇陛下께 上奏 御裁可를 仰하엿다

그리고 及川第三艦隊司令長官에對하야 右趣旨를 通達하는同時에 重大回訓을 發하엿다

(寫眞은及川司令長官)

犯人逮捕한堀井氏談

【上海二十三日發同盟】富士見洋裝店前에서 犯人을逮捕한 新六主人堀井正氏(三五)는 當地의 模樣을 左와如히말하엿다

拳銃소리가나고 日本水兵이 너머지자그겨를보니 拳銃을가진中國人이 逃亡하려함으로不知不覺에 달려드러 拳銃을奪取하는同時에 犯人을 逮捕하야 陸戰隊에引渡하엿다

增稅와公債政策

消化能力이問題

中根三和銀行頭取談

三和銀行頭取 中根貞彦氏는 二十四日 午後三時二十分 入京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朝鮮에는 한번도 오지못하여서 人事兼하야왓다 別目的이잇는것은아니다 政府增稅案이 發表되여 財界에 相當한 衝動을 與하고잇는데 이것이 金融界에 미치는 影響은 只今갈작히 豫測할수는업다 그러나 稅率引上은 相當히 큰것인만큼 公債消化能力等의 點으로는 非常히 問題가 될것이다 即 公債消化力이 減殺되면 政府도 所謂 庶政一新이라 稱하는 國策遂行에 困難을 生케한다 따라서 大藏大臣으로서도 事業을 速키하기어려게될것인데 根底를 뭇으고 實際로는 明白히 決定치 못하는以上 이影響을 的確히 指摘할수는업다 如何튼지 相當히 決心한 稅制案일터이다 日本內地銀行合同은 兵庫縣에具體化되고 잇는데 急激히 한번에 行할것은 아니다 日本의 銀行도 相當히 오랜 歷史를 갓고잇는故로 이에 變化를 與하여서는 아니된다。金利情勢에 對하여는 무엇이라 하기어려우나 現在의赤字公債政策이 維持되는 以上 低金利는 繼續될것이라 볼수밧게업스나 增稅가 斷行된다면 그러케만 볼수도업다 經濟의統制問題는 複雜한 改革案乃至 統制案이잇스나 여게는 모다 目標가 업서서 實로 困難하다 要컨대 目標를 定하는것이 先決問題다。

豐臺의中國部隊 郊外로全部撤退

【北平二十四日發同盟】豐臺中國部隊는 二十三日로써 全部 北平外南苑兵營에 撤退하엿다 中國側의 現地協定遂行에 따라豐臺問題는 一段落을 告하엿다

夕刊後市況 (廿四日)

◆大阪 短期 第一部◆

大新	七一八〇	(一〇低)
鐘新	一七二七〇	(二〇〇低)
日產	七九二〇	(二〇低)
東新	二三六八〇	(一〇〇高)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二八〇〇 先限 七二四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一六〇 先限 —

改造 十月特輯
科學政策の矛盾 田邊元
(哲學界の第一人者が科學政策の矛盾を剔抉し精神の旺盛なる發達を助長する切言した名論)
◇電力國營案うら・おもて…茂木國作
◇國政と大衆…戶澤鐵彥
◇北方水產業の發展と科學的研究…高岡熊雄
◇醫聖ペッテン・コーフエルの悲劇…太田千鶴夫
◇ジロンド黨の最後(革命秘話)…矢野目源一
◇小市民的作家と市民的作家…高橋健二
◇自然現象と社會現象…石原純
◇世界的科學者の橫顔…菅井準一
駿臺劇話 市川左團次
◇雄飛一番舊來の通念より蟬脫すべし…橋本欣五郎
◇プーシキンとバイロニズム・昇曙夢
◇贋物僞物掘出しオンパレード・石黑敬七
◇スタンバーグとエルマーライス・竹內逸
小林躋造論・伊藤正德
◇(詩)山霧聖歌・神保光太郎
大阪界隈・長谷川伸
日支新紛爭
◇四川の今昔…竹內夏積
◇成都畫報…布利秋
◇抗日運動の現勢…大西齋
◇暴虐の現地を見る…田知花信量
◇黨部と蔣介石政府…鈴木小平
雌阿寒嶽 山本實彥
北海道の農村 向坂逸郎
癩院記錄 北條民雄
◇世界情報 ◇寸評欄
◇チヴィエフ派の銃殺…荒畑寒村
滿洲問題の再認識…新明正道
◇經濟統制と國策の一課題…蜷川虎三
◇國策と內閣制度…關口泰
◇軍部と國策…馬場恒吾
國策と輿論
◇當世「人間」のお値段…貴司山治
◇蘇聯の北氷洋征服…平竹傳三
◇國產自動車合戰記…島田晉作
◇現代文學と理性…藤原定
小說 小さき歩み・佐藤俊子
習俗紀…芹澤光治良
梅屋敷…新田潤
アルバム…林房雄
父母…川端康成
◇彷徨する夢…橫田文子
◇惡作家より…石坂洋次郞
(朝鮮小說)◆櫻は植ゑたが…李泰俊 ◆旱…朴花城
◇明鏡(中國傑作小說)…歐陽山
◇昭和風土記 (松山)植村清一 (大阪)下田將美 (金澤)古屋芳雄 (川崎)佐藤惣之助
スペイン革命を繞りて座談會 青木新・橫田喜三郎 町田梓樓・木村毅 布利秋・美濃部亮吉
畫報 スラビヤ
日本人民戰線論「批判」・菊川忠雄
特價壹圓 送料四錢 東京市芝區新橋七 振替東京八四〇二 改造社

어린애들이 자다가感氣에걸리면
オイン

朝鮮日報 京城

(커트는 학생미술전람회포스타)

本社主催 學生美術展覽會

藝術의가을을 豪華版

廿七日의申請期日을압두고 陳列과搬入에奔忙

예술의 가을을 찬란히장식할 예술전당의 호화판。오는시월오일부터 십사일까지 열흘동안열리기로된·제일회 전조선학생미술전람회(第一回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는 신청기일인 구월이십칠을 압두고 벌서부터 전조선남녀 학생게에 큰충동을 일으키며 신청및반입(搬入)장소인본사서무부(庶務部)와평양(平壤)대구(大邱)함흥(咸興)및전주(全州)본사 각지국에는 날마다신청서가 답지하야 아십팔일부터 삼십일까지(전기각지국을 통하야반입할때는 이십구일까지) 의 반입기일을 압두고 본사및전국지국계원들은 신청서 처리와반입된작품진렬수송(陳列輸送)준비에 분망중이다。이전람회에 출품할수잇는 종목은 사고에자세히발표 되바와가티 중등부(中等部)에는 동양화과 (東洋畵科) (사군자를포함함) 서양화과 (西洋畵科) 공예과(工藝科) (조각、공예품、자수、편물)와 초등부(初等部) 에는 자유화과(自由畵科)및 수공과(手工科)로서 본사에서는 전조선방방곡곡에 잇는중초등정도 학교에서 배움의길을 열심으로 닥고잇는 남녀중등생및초등생들의 미술에대한 천분을 충분히 발휘할기회를주는동시에 미술에대한 관심과 노력을 북돗기위하야 우수한 작품을 널리모호는터이며 동시에입선작품중에서 특선상(特選賞)과 우선상(優選賞)까지 각과를통하야 선발하야 각각정부상 (正副賞)을 주기로되엿는바 그림과공예와 자수편물등에 자신이잇고 도천분을가지고잇는 중등생은 이미신청한이는 반입기일안에 신청한 작품에다 작품제호(作品題號)및 주소씨명 소속학교 학년별년령 등을 분명히써서 반입할것은물론 아즉준비만하고 신청을안한이는 신청기일이 이십칠일까지이니기일안에 곳신청하는동시에 반입기일중에 각가운 반입장소로 작품을 반입하기를 바라는바이다 예술에대한 천분이잇고 자신이잇는이는 자긔의실력을평가해볼 달리가질수업는 조흔전람회인즉 이전람회야말로 전조선각지에 숨어서 일홈업시 자라는어린남녀예술가의 작품이한자리에 모히여 명예잇는 글시자그대로의 예술전당을 일우어 장래조선의 예술의귀추를 엿보게할것으로보사는자긍하는바이다

內外各地로부터 救族의誠金還至

募集期限도아프로六日남기고

感激에넘치는同情金

수해구제 의연금품의 모집기한이 아프로 겨우 엿새동안바게 남지안토데다가 날세는 차차 치워오느니만치 각지로부터 드려오는 의연금품도 폭주하고잇서 이것을 취급하고잇는 본사로서는 오직 감격할따름이다 다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십이일현재도 본사에서 접수한 물품의 총점수는 십이만이백여점이어서 사선에서잇는 동포들에 끼고 념려하는 정성들이 이처럼만흔 물건의 한가지 한가지마다 매처잇는지를 넉넉히 엿보고도 남음일이다。그리고 이십사일에는 또 다음과가튼 금전이 본사에 드러왓다。

▲一金五十四圓六十六錢 東京市麻浦區東村町在住朝鮮人一同

▲一金十五圓十四錢 本報金堤支局取扱分

▲一金三圓二十錢 咸州郡退潮面豊西里振興會員一同

▲一金四十六圓六十二錢 興南朝窒會社工作課仕上場朝鮮人一同

▲一金二百二十一圓 福岡縣糟田郡佐久間村山室 三信親睦會朝鮮人會員一同

▲一金百八十二圓七十四錢 石川縣石川郡鶴來 石川縣親睦會支部朝鮮人一同

▲一金二十七圓三十錢 東京市大森區大韓三丁目京濱親睦相助會朝鮮人會員一同

▲一金二圓八十四錢 鳳山郡鰲泉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

▲一金卅一圓卅錢 神戶市林田區關西本町 友愛會員一同

▲現金二百六十六圓九十錢 衣類六百四十四點 京城天主敎聯合靑年會

▲現金卅三圓四十錢 衣類四百十五點 付岩町町會

通仁町에赤痢

男妹가一時에發病

배추와 과일등이 흔하고 겸하야 환절기인 때를당하야되는소화기 계통전염병에 더욱주의하여야 되다-시내통인정(通仁町)백사십팔번지 정창섭(鄭昌燮)씨의맏딸 녀자상업생도 귀봉(基鳳)(一七)이와 맛아들 아현공립고등소학교(阿峴高小)생도귀원(基元)이는 지난이십일부터 가려일키시작하야 이십사일 진찰한결과 적리(赤痢)로판명되여 순화원(順化院)에 입원하엿다고

아들의書信밧고 留置場에서痛哭

罪진몸이라어찌할수업고

父性愛에타는肝臟

몸은비록유치장속에서허덕이나 그사람에게도 역시남과가튼사랑도잇고 피도잇다는 부성애 (父性愛)의 이야기가잇다

이십사일오후두시경 시내본정서지하취조실에서 편지한장을쥐고 부들부들떨면서 우름을울고잇는 피의자가잇섯다 그는황해도 신계군(黃海道新溪郡)출생의 서상칠(徐相七)(三七)으로 수일전사긔혐의로 그서에 유치당하고 취조를밧고잇는중이다

그날아츰 본정서 유치장주소로 그사람에게 한장의편지가온것을 그서형사가 떼여보앗든바 서상칠에게는 수권(秀權)(七)이라는 어머니를일어 젓맛을모르는 단하나의어린아히가 잇스며그가서울로올려오기전 금년이월달에군산부개복정(群山府開福町)이정목황원봉(黃元鳳)이라는 사람에게 얼마식양육비를보내주기로하고 그아히를 맷기엿다한다 그후 서상칠은 서울로 올러와서이리저리 일터를 구하려고애썻스나 마음대로 되지안음으로 이에 궁한 그는나뿐마음을 먹고 가금시게(假金時計)를 가지고 사긔행각을 하다가 그와가티 경찰에 체포되여서 근일은 양육비도 보내지 못하고 잇든바 전긔황원봉이도、생활곤난으로 만주방면으로 이주하게 되엿슴으로 그어린아히를 어떠케 처치할것인가하야 그와가티편지한사실이 알리게되엿다 한다 이 편지를본、서상칠의피는 오래동안 잠자고잇든 부성애로 [illegible]간장을 어일듯한마음을 억제할수업서서 그와가티 대성통곡한것이 라한다 그러나 그는현재오직장에잇는 처지임으로 자긔손으로는 여하히도할수업고 결국수권의양육문제는 현재공중에떠돌고잇는형편이다

桂洞에腦脊髓膜炎

시내 계동정(桂洞町)아번지의삼십이호의오호 김순재(金順在)(三)는 이십사일 뇌척수막염으로 판명되여순화원에입원하엿다

今次災難에鑑하야 風水害保險實現?

有力한保險業者가申請하면

總督府도許可할意向

일본내지에서는 작년여름 관서지방(關西地方)을 휩쓰른 풍수해(風水害)를 계긔로하야 이미 풍수해보험(風水害保險)의 실현을 보고잇는데 조선에서도 금번 수재해를 마지하고 이와가튼 보험을 요망하는 소리가놉흠으로 총독부에서도 유력한보험업자가 인가신청을 하는때에는 이를 허가할 의향이라한다 그런데 이새로 나는보험의 목적은

一、주택(住宅)점포(店舖)공장、창고 교량(橋梁)과 그내포함되는 동산(動産)에대하야 풍수해로 말미암아 발생한손해를 진보(塡補)함

一、포해(雹害損害)에 대하여서는 따로히、특약(特約)으로써 할증금 (割增金)을 징수함

一、보험료금은 건물지구 (建物地區)에 의하야 등급 (等級)을 설정하고 대락보험금액의 천분지일이내로함

등이중심으로 되여잇는데 이제도는 도시(都市)에서는 대단편리하나 농산어촌(農山漁村)에서는 보험가격의 인정(認定)기타 여러가지로 곤란한 사정이잇슴으로 이것을 여하히 완화할것인가의 문제가 이후에 남을문제로 당국에서도 이에대하야충분히연구하리라한다

逃亡한賭博군 마츰내被捉

부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일백구십오번지에사는 여작사 김용수(金溶秀)(三〇)는 화천정(和泉町)과 봉래교(蓬萊橋)부근에서 『마루이찌』노름을 상습으로하는사인데 지난십륙일 공덕정(孔德町)일백십오번지아페서 룡흥학교(龍興學校)생도 최호준(崔鎬濬)(一三)을유인하여가지고『마루이찌』를하다가 최군의 소지금오원을빼아서가지고 도망하엿섯는데 이십삼일 오전아홉시삼십분쯤에 화천정부근을 배회하다가 서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다

北朝鮮은大豐

정어리도百萬樽突破

【羅津】 남조선가지는 미증유의 수해로 논、밧과가장초를 모다 일허버리고 그이재민들이기구한생명을 북조선에 의탁하고 점차북조선에 이주하는현상이어니와 북조선의년사는 이와반대로 해、륙(海陸)한가지로 대풍이라한다

해산은 정어리! 청진(淸津)을 중심삼아 남으로 어대진(漁大津)북으로 서수라(西水羅)까지 각연안의 어획고는 벌서 백만여준(樽)을 돌파하야 그가격이 삼백수십만원에달하고 농산은백곡! 청조가장할뿐아니라 결실

金玉花의篤行 衣服四十벌을

【開城】 그늘진 화류촌에 아롱다운 인정의꼿한폭이=그의일홈은 김옥화(金玉花)(一八)=별로히 화류계애랑(愛郞)들에게 눈뜬일만큼 화류계생활도 오래되지못하엿스나 남다른동정심으로 이번리재민들이 주림에 또한추위까지 절박하고잇슴으로 생각하니 참아인정에 그냥잇슬수업서 팔목세동옥이상내다 의복사십벌을지여본보개성지국에부탁하얏다

"우숨의王國"에 훌떡반한人妻

그의아버지가경찰에설유원

버젓하게 남편까지 잇는 딸이 극단 배우에게 반해서 굿내 남편에게 도라가지 안는다고 경찰에 설유원을 제출한그아버지 !-본적을 애원현신거군(愛媛縣新居郡)에 두고 방금 서울에와 묵고잇는 중촌상지 (中村尙志)는 자긔의 둘째딸로강원도 린제군 기린면 (江原道麟蹄郡麒麟面)에 잇는 영림서 (營林署)원 정구풍수 (井口豊秀)의안해인 준자(俊子)(二七)를 차저서 다일려 달라하고 이십삼일부내 룡산서(龍山署)보안게에설유원을 제출해왓는데

그것에 의하면 준자는 거금 두달전에 병을 고치고저 리제군으로부터 서울에 와서당、어떤 병원에 입원해잇는동안 때마침 영정(榮町)개성좌(開城座)에서 흥행하고잇든 떠도라다니는 극단『우슴의왕국』(笑の王國)의 배우 죽내이웅(竹內二雄)ㅣ이상보다 가명ㅣ에게 반한바되여 두남녀는 그후 한경도방면으로 손목을 맛잡고 도망한것을애써 차저가지고 서울로 끄으러 올려다가 황금정(黃金町)삼정목에 잇는 중도려관(中島旅館)에 묵고잇스면서 남편되는 정구에게 돌려보낼 준비를하고잇든중 지난 이십일에는 그 아버지되는 중촌이가 목간통에 드려간틈을타가지고그가 다시 정랑이 잡복해잇는 룡산방면으로 자최를숨기고말엇기 때문이라한다

◇間島東興中學對培材蹴球戰=上은 兩軍紀念撮影 下는 白熱된競技場面

東興中學軍 第一戰에惜敗

培材軍의銳意的攻擊

間島東興中學軍의 故土訪問第一戰인 對培材蹴球戰은 朝鮮蹴球協會主催와 本社後援아래 二十四日午後四時三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린바 遠客東興軍力戰奮鬪하엿스나 戰運不利하야 惜敗의 一點差로惜敗하엿다

培材3 東興2

【前2…1 後1…1】

東興中學對培材戰은 同日午後四時四十三分부터 納暎河(主審)片茂英、金龍圭(陪審)三氏審判下에 培材先蹴으로 開戰한바 十六分까지 兩軍자못伯仲之勢를 보이드니、培材RI黃鎬順君이 東興軍前四米地點에서『文』하야 貴重한一點을 先取하자 東興軍의逆襲이 자젓스나 得點치못하고 十二分에 培材RW方在明君의妙蹴으로 또一點을加하니 東興軍때앗긴二點을 挽回코저 猛烈히突進하야 前半一分을남기고 偶蹴을利하야 킥한것이 培材꼴포스트에마저서 꼴이되여 二對一되재 前半戰을마치다 後半에드러가 開戰三分에 培材黃鎬順君의 文으로 得點하니 東興軍奮起하야 培材꼴前에 肉薄하엿스나 不運을 눗길뿐이드니 十五分에 東興軍패날틱킥을 利하야 朴東奎君의 킥으로 一點을더호니 三對二로 戰勢는 激烈化하야 滿場을 熱狂케하니 드듸여 東興軍一點差로 敗하엿다

(게임七十分間)

【東興】		【培材】
崔基南	LW	李甲鎬
補應浩	LI	李興雨
朴東奎	CF	閔炳大
姜消亨	RI	黃鍾順
李永光	RW	方在明
金成瑞	LH	金公松
金廷九	CH	金福壽
鄭禮焱	RH	劉永仁
黃鍾律	LF	朴在次
朴根福	RF	朴大鍾
尹春吉	GK	成瑀璇

	得點	門蹴	角蹴	自由
【培材】計	3	13	5	1
後	1	3	2	0
前	2	10	3	1
【東興】計	2	14	1	6
後	1	7	0	3
前	1	7	1	3

延專主催中等庭球 申請今日限

延專主催의 第七回全朝鮮中等校秋式庭球大會는 來十月二、三兩日間、延專코-트에서 開催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大會申請期限은 今二十五日午後四時까지라한다

A마라손會 廿六日午後三時

서울陸聯主催의 A마라손會는 明廿六日午後三時부터 光化門通네거리를 出發點으로 漢江人道橋北端在復 約八哩코-스에서 擧行할터인데 參加希望者는 競技當日出發前까지 申請하야주기를바란다고한다(參加費不要)

同德卓球優勝

開城高麗靑年會主催의 第三回全朝鮮女子卓球選手權大會는 二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 同會館에서 二十六名이 參加한가운데 열린바 前年度優勝校인 同德女高姜彭玉孃이優勝하엿다한다

◇準決勝戰

姜彭玉(同德)3…0尹明鎭(女商)

許完順(同德) 棄 李喜順(同德)

◇決勝戰

姜彭玉(同德) 棄 許完順(同德)

府廳5 殖銀3

京城實業野球聯盟主催의 秋期리ㅣ그戰 府廳對殖銀戰은 廿四日午後四時부터 京城球場에서 石井(球) 橋口、中島、津村(壘)四氏審判下에 府廳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五對三으로 府廳軍이 勝捷하엿다

◇投捕 (殖銀)吉本ㅣ小笠原 (府廳)松元ㅣ崔仲乙

殖銀	0	0	3	0	0	0	0	0	0	3
府廳	0	0	0	0	0	0	0	3	2	5

5…3

本社寄贈의優勝楯 (延·崇定期蹴球戰優勝旗에)

待望의兩大蹴球戰

延專對崇專·東興對儆新戰

今廿五日午後三時 京城運動場

主催 延禧專門學校 崇實專門學校 後援 朝鮮日報社

入場料 一般 三十錢 學生 二十錢

냉중婦人落望할것업다

男便의愛를되차지하는秘訣

東京帝國大學病院의發明療法

湯藥은下腹까지못간다 醫學博士 木村仁

湯藥、丸藥、散藥가튼內服藥은 먹으면 배만부르고 絶對로冷한 몸을 속속드리 더웁게못하는故로 婦人病이즉시 또再發되다 몸속까지더웁게하야 婦人病의 根本을 깨끗히 根治식히는 정작子宮藥을 發明치못햇슬때엔 一時的으로 病을눌느게하든것이 내복약이엿다 昭和의오늘날 글못하는 까막눈이아닌담에야 글字를 수잇는婦人이면 感染된 子宮의림질菌과 냉증으로생기는 子宮의黴菌은 內服藥으로서 살균못식히는것이나 月經의분량이 적게나오고 아래배가수시고압흔 月經困難、子宮으로부터 냄새나는코갓혼물이나오는병、子宮업는子宮은 內服藥으로는 根本이全治안되다는것쯤은 아라두시지안니하면 男子의사랑은 다른데로 빼앗기게되든가、離婚으로부터 一生을 괴부로웁게된다。

冷症을活動하면서家庭서秘密히根治 醫學博士 田谷誠

全快하신세사람의 편지는數十萬名中에서 뽑은一部입니다。뒤지버쓰듯먹는 湯藥으로도 낫지안는冷증이 새로발명된 東京帝國大學病院婦人科의 치료법인와세돈球로 날짜가 걸니고돈이만히드는醫師에게 치료밧는것보다도간단하게완치되고잇습니다。

夫婦愛絶頂大學療法의德 京城 趙淑姬

여러해나서三越、和信、丁字屋等의 百貨店等을利用하려는젊은女子들은 外氣차듸찬바람을쏘이는機會가만아젓습니다。還甲작이突房에잇다가바게나오면 찬바람에 몸이냉해저서지난歲암부터月經이고르지못하고 아랫배가직근직근압흐며 못내아해도스러보지못하엿습니다每日각치 배속이부글부글괴로울만치 藥을 連服해왓스나 자궁에서나오는 냉습이끈치지아니합니다。男便은애도못낫는다고 離婚하려는눈치가만아젓습니다。그래서대天코단봄노단니든漢方醫를단념하고 東京가서大學을마치고 博士가된분에게診察을밧고二三日連해서子宮을씻서주고나서 東京大學病院婦人科에서쓰고잇는『와세돈球』를自宅에서使用하시요、湯藥이나子宮을씻서내는것보다百倍나효력이잇다고勸함을바덧습니다。냉중은와세돈球로낫고子宮病은全治되여서 곳姙娠하엿습니다。

湯藥의千倍의効果

먹는藥은몸전신에 퍼지는길에 그一部分이 자궁에 작용하는사히만의 효과인故로 百日千日을 게속하야湯藥을連服하여도 부인병은낫지안습니다。즉접전부藥을 자궁에너서낫게하는 와세돈球는 湯藥의千倍의효과가잇서서 먹는 음식에는 아모관게업시확실이근치되는것이외다。

냉승이절대로再發안어

지버넛는와세돈球는 즉시녹는故로 전부가모다자궁속으로드러가 버리는까닭에 의복에뭇지아니하며 시간과수고가 덜드러서 일하면서도 자궁병이 낫게됩니다。말덩거리는 조고만한것이므로 피고름이는나오 자궁국부에나 未婚처녀에게도 손쉽게지버너흘수잇습니다 아모냄새도업슴으로지료하고잇는지도모르게비밀하게할수잇스며 사용中에라도夫婦화합에조곰도상관업습니다。冷증을와세돈球로全治식히뒤에는살을여히는듯한치운바람이불어도絕對로再發되지안습니다 주름살과눈가세의푸른색도가시게하며 거치러진듯살결도부드럽고윤택이나몸속을더웁게맨드는까닭입니다。

男便의情愛百倍되는冷症이낫다 平壤 康龍女

男便에게서 갑섭되여 百日이나湯藥을連服해도 낫지안는누르코가튼것이흘너나오는 子宮病에와세돈球를써서病院藥보다싸고얼마안되는金錢으로根治됏습니다。한번딴딴한알가튼 子宮藥을써서몹시냉해진 배와허리와넙적다리가몹시송곳으로 찌르는것가티압흐며 거문써운덩이가튼 피고름이흘너나와 苦生하엿엇습니다。東京가留學中인동생에게日本서第一効力조코信用잇는藥이라하기에 하세도球를써보앗드니湯藥의數十倍나 냉이송해든허리가터워지고 淋毒인누런냉습이끈치지며頭痛 언개결리든증 귀가먹먹하든증이 씨슨듯이나서 흘연쇠약해진몸이 살이오르고血色이조아젓습니다。부인병으로他處로빼앗겻든男便의愛情이 지금은完全하게 내것이되여버렷습니다。

淋毒이根治되여 다시美人이돼 京城 高敬子

結婚하자즉시엿습니다 小便본뒤에도쑤시는것갓고 아랫배가댕기며홀너지고 양쪽넙적다리가댕기며압흐며 子宮으로부터고약흔냇끈거리는누른것이 흘너나왓습니다 귀가멍하고머리가무겁고억개가절러지며 냉증이심해서몸이몹시피곤하고허리가 끈허지는것갓햇습니다 男便에게서옴은림질인으로난病인줄 놀내서즉시그날부터 한옷이나되는藥을 끄렷다식히여아침낫저녁으로 세때식배가차서 입으로넘어나올만치 먹엇습니다。그러케하얏스나배앏흔것과 림질毒는는자궁에서 나오는물은끈치지아니햇습니다。와세돈球를쓰기시작하자부터는 냉습도병아가끈치지고 댕기고압흐든배도낫고 냉습도나오지아니하야지며 더운물에드러안진것가티몸전신이혹근거려저서그러케빠지든머리칼이안빠지고 이마와눈찌의주름이펴저서 죽은꺠까지점점엽서지며 눈주위에검푸른것도엽서저서 꼿가티도로젊어젓습니다。

帝國大學病院療法 와세돈球

가정에서쓸수잇는 證文하시라면葉書로總代理店에

와세돈球는二三回分의치료법이잇는로라으로全治됩니다 十二日一圓二十錢、二十四日分二圓三十錢 三十六日分三圓四十錢 六日分七十錢、十二圓의病院用도 여러분自宅에서쓸수잇사오니 請求하는대로보내드립니다 注文은總代理店으로葉書로 何日分보내라고하시면 急速하게代金引換으로보내오니 第一간편합니다。各送料三十錢式입니다。河合博士의治療法을說明한女性의新生理學도청구하시는대로 거저보내드립니다。

東京市芝區海岸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河原支店 振替東京二三〇一九番

京城版

鹽田에서釣魚中 卒倒하야急死

【仁川】염전에서 고기낚다가급사—경성부(京城府)봉산(鳳山) 철도국원 백도증태랑(白島增太郞)은 지난이십이일오후 사시경 주안(朱安)염전제륙구에서 낙시질을하다가 별안간 졸도하야 의사하고말엇다는데 어느틈에 절도가 침해하얏는지회중시계와 지갑을 도난당하얏다한다

四倍大로擴張될 大仁川은十月一日부터 町洞名도數處改稱할方針

【仁川】인천의 부구역은 십월일일을 기하야 현재의사배로 구역확장을 단행하리라함은 이미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이와한가지 면목이일신될것은동명이라 한다 인천부내 십개리를 원동명에 정(町)자만첨부키로되고 룡리(龍里)는 룡운정(龍雲町) 신화수리(新花水里)는 화수정(花水町)으로 개칭하리라하며 따라서 구역확장축하회는 십월중순에 개최키로 결정되야 방금 그준비에 로력중이라한다

一波萬波의救濟品! 千餘點을災地에 本報開城支局에서收集分 四處로分해發送

【開城】제때에월사금을 못내는 부내무산아동들이 적성이 오히려 놀랍다는 보도가 발표되자 그후일반독자의 영향은동히 이일파(一波)로써 만파(萬波)를 불러일으키듯 커너도나도다토아희사하는 동정열은 절정에달하야 매일본보개성지국에 고탁되는 금품은 각학교를 비롯하야 정회 기생조합 개인으로자고만 운집되엿든바 지난이십이일까지 드리와쌓힌 의복만이 실로천여점을 돌파햇섯는데 전북(全北) 충북(忠北) 경북(慶北) 경남(慶南)사도재해지로 각각이백여점식 분배해 발송하얏다

(寫眞은水害救濟品發送光景)

各界에서遝至하는 熱淚의救濟金品

【仁川】전인천 각게를 통하야 동원되여잇는 구제품연출은 실로 문자그대로 살도하고 잇서 본보인천지국에는 의복등이 산적하고 잇는형편이다 중에도가장 감격의 눈물을 금치못할사실은 송현리(松峴里)교회에서송부한 구제금품으로 동교회의교도는 거개 궁세민층으로서 빈한한 생활을 유지하기에 극난함을 무릅쓰고 재지동포를 생각하고 의류삼십삼점과 현금 십륙원삼십륙전을 본보인천지국에 괴락하야 국원일동의 감격에적지안이한 충동을 주엇다한다

松峴里基督敎會 現金十六圓三十六錢 累計 四百五十圓二十四錢
松峴里敎會 衣類六十八點 累計 三千四百五十二點

永登浦住民도 高潮의救濟熱

【永登浦】금번 대홍수로인하야 참경을입게된 리재민들은 때을것 입을것이업서 도로에 방황을 하게되며 더욱가을바람은여지업시 불게되여 설상가상에곤경을 밧게되는 리재민의 정경을 볼수업다는 순정에서 나온구제열은 영등포 주민에게 국도로 일어나게되여 한벌의옷 한푼의돈이나마 아니보낼수 업다하야 속속게출케된 구제금품이 본사영등포지국으로 운집되엿다는데 그씨명과 수량은 아래와 갓다고한다

▲金一圓 永生堂藥房一同 ▲金十圓 聚神丸五十包 朴性喆 ▲金五圓 永登浦國防婦人會 ▲金十圓 權寧浩 ▲金十圓 趙仁[illegible] ▲金一圓 崔鍾[illegible] ▲金一圓 崔洛鈞 ▲金五圓 冠嶽山佛敎相助親睦會 ▲衣服一千七十二點 白米二斗六升五合 고무靴一足 敎科書一冊 麻布一疋 本洞町町會一同 ▲金十五圓四十錢 衣服十三點 [illegible]長老敎會 ▲二十圓 申敬植

東大門署管內 秋季種痘日割

시내동대문서에서는 지난이십일일부터 좌긔와가티 추긔종두(種痘)를시행한다고한다

九月二十一日 九月二十八日 同 德女學校 昌信 崇仁町 八四四 同二十四日 同三十日 大學豫科 路十里 [illegible] 回基 里 門[illegible]町 三六八 同二十五日 十月二日 鐘城學院 昇仁町 二三五 同二十六日 同三日 [illegible]會館 敦岩町 二二四 同二十七日 同四日 仁昌公普校 新設町 一、三三五 九月卄八日 十月五日 京城女子實業學校 鍾路六丁目 同 二十九日 同六日 [illegible] 鍾路五丁目 [illegible]各町 同三十日 同七日 東星商業學校 明倫町一、三、四丁目 惠化町 惠化町 北町 同三十日 同七日 東大門警察署 鍾路四丁目·[illegible]町 仁義町 苑南町 十月五日 同十二日 往十里公普校 上往十里 下往十里 九二二 同六日 同十三日 往十里[illegible]堂 [illegible]峰、杏堂、沙斤各町 二〇五 同七日 同十四日 彌陀寺 金湖 [illegible]水各町 一三五 同十五日 同二十二日 競馬場 安岩、鍾岩、祭基、龍頭、新設各町 七九四

開城永昌紹介組 豐德人의義擧

【開城】금전과물품으로 끈일새업시 드러오는 구제품은 이십이일에도 답지한바 부내지정(池町)영창소개조합원(永昌紹介組合員) 일동이 주머니를 털어모흔돈, 이십원과, 따로히 풍덕인(豐德人)이란 명의로 오원=합계이십오원이 본보개성지국에 기탁되엿는데 그의본명은 절대으의함으로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동조합사무원 오동환(吳東煥)씨라한다

우슴파는그늘에도 따듯한人情

【開城】술거리에서 우슴을파는 녀자들의다뜻한인정=부내 남산정료리옥조합(南山町料理屋組合) 륙십여명이 잔악한품을팔어 모은동정금 삼십일원오십전을 지난 이십일본보개성지국에 기탁하며 재지동포에게 보내달라고하엿다 한다

京城府方面委員會

경성부에서는 중앙 사업협회(中央事業協會) 복산량일(福山良一) 목촌성(木村盛) 욕풍회(浴風會)상전량웅(相田良雄)등제씨를 강사로 청하야 이십오일오후두시에 경성부청회의실에서 방면위원실무강습회를 개최할다 이라한다

京城府常任委員會

경성부회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는 이십사일오후두시에 부청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방금실시중인 각종공사상항시찰에 관한 협의를 하엿다

昨日의本社參觀團體

▲龍井東興中學校生徒十四名 敎員蘇點得氏引率下 參觀
▲江西青年學校生徒七十名 金基憲敎員引率下參觀
▲中東學校生徒九十名 敎員洪萬植氏引率下參觀
▲大同郡 三惠學校生徒 三十名 敎員李觀善氏引率下參觀
▲平壤崇德普通學校生徒 五十五名 尹泰泳敎員引率下參觀

丹楓욱어진朴淵에! 二八處女가投身 哀傷의가을에失戀의果報?

【開城】단풍이 바야흐로 붉어지는 박연의가을은 달보다 고흔 처녀의 애처로운 죽엄을이야기하고잇다

권녀의 일홈은 최금주(崔金珠)(一七)부외 령남면 반정리평촌(府外嶺南面半亭里坪村)에서려인숙을 경영하는 최긔준(崔基俊)의 셋재딸로 지난십삼일 오후두시경에 홀연히 집을떠나온박연에 몸을 던저 자살 한것인테 그후 약 한시간 만에시내 제일송보(第一松普) 선생전수창(全壽昌)씨가 발견하는즉 응급수당을 햇스나 소생하지못한채 절명되고말엇다는데 방년십칠세의 꼿다운나히로 오늘날저승길을 밟게된원인은 아마실연비에인듯? 만삭이되엇듯 똥똥한 복부와 유방을보면 아이까지 배지안햇나하는 의심도든다한다

朝鮮서처음되는 童謠競演會

오는이십삼일밤 여덜시에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소년부주최로 조선서 처음되는 어린이의 큰모힘인 전조선소년소녀 현상동요대회(全朝鮮少年少女懸賞童謠大會)가 열린다고한다

여기의 심판으로는 홍난파(洪蘭坡) 박태준(朴泰俊)윤복진(尹福鎭) 윤석중(尹石重) 제씨라하며 이날밤의 출연자는 부내에 잇는 각주일학교 보통학교 학원 방송단체등은물론 멀리평양에서도 오게되엿다한다 그리고 특별출연으로 경성보육학교 합창단의 합창이잇스리라하야 당야의 대성황을 예기하고잇고입장료는누구나 오전(五錢)균일로 되여잇다한다

運動競技

實業庭球第八日 殖銀軍快勝 商銀·專賣戰未盡

京城實業庭球리ー그第八日은 二十四日午後五時부터 專賣對商銀(商銀코ー트) 殖銀對遞信(殖銀코ー트)이 各各열렷든바 다음과가튼戰績으로 殖銀軍은 崔李組의孤軍奮鬪로 第三라운드에 드러가 勝捷하엿스며 商銀對專賣戰은 第三라운드에 드러가 日沒로 因하야 明二十六日에 續行하기로되엿다

【殖銀】勝 【遞信】
(第一라운드)
×(藤原 前試館) 2…4 (松田 李鍾植)○
○(崔永生 李鍾鎭) 4…0 (朴鍾燁 大友)×
×(嚴京龍 神田) 1…4 (宮崎 孫觀星)○
(第二라운드)
○(崔永生 李鍾鎭) 4…1 (松田 李鍾植)×
(第三라운드)
○(崔永生 李鍾鎭) 4…2 (宮崎 孫觀星)×

【專賣】 ? 【商銀】
(第一라운드)
○(白俱輔 朴寅世) 4…3 (金時浩 加藤)×
○(黃基成 淺野) 4…3 (沈準燮 河村)×
×(李鳳基 梁在璟) 2…4 (洪鍾相 劉殷相)○
(第二라운드)
×(白俱輔 朴寅世) 3…4 (洪鍾相 劉殷相)○
(第三라운드)
(黃基成 淺野) ? (洪鍾相 劉殷相)
(日沒로延期)

今日의運動

▲蹴球=延專對崇專定期戰第一日 午後四時半 京城運動場 第二日 間島東興中學招聘戰 第一日 新學校對東興 午後三時京城運動場 (入場料一般三十錢 學生二十錢)
▲庭球=秋期實業庭球리ー그第九日午後五時 鐵道對專賣(朝銀코ー트) 朝銀對遞信(殖銀코ー트)
▲野球=秋期實業野球리ー그 京電對府廳 午後四時 京城球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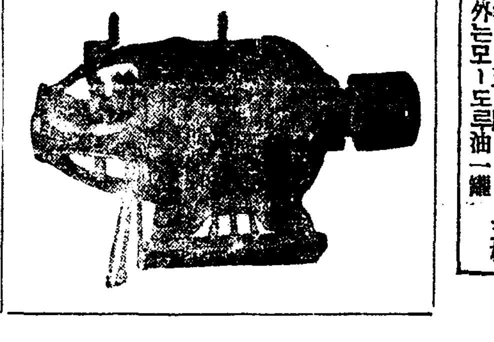
陽氣업서 恨歎하시는 분이여!
貴下를 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 天惠的靈効를 가진
樺太廳官營捕獲
眞品海狗腎
을販賣함

本品은 北洋寒帶樺太의 無人島産을 樺太廳에서 官營으로 捕獲하야 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 嚴正檢査證明한 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 一服하시면 그神効함을 能히 利用하실것이외다! 求服을 願하시는분은 說明書請求하시면 無料進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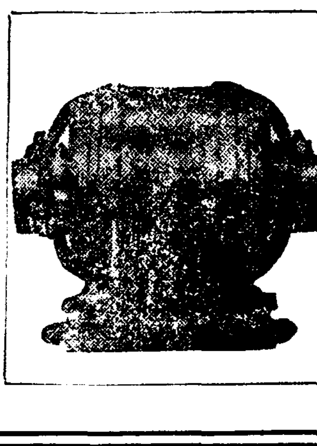
發賣元 釜山府草梁町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一二二一九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모ー도루界의覇王三菱モートル景品付特賣開始

萬天下의모ー도루界의覇王三菱モートル가今番宣傳하기爲하야全鮮一齊히景品販賣를開始하고잇습니다 此好機會를逸치마시고만히御愛顧하시며一層더利用하시여最寄特約店을通하야多數御買上하야주시기를切望하나이다



◇모ー도루一臺에抽籤券一枚進呈但百枚를가지고一組로함
一等 五十圓 一枚
二等 三十圓 三枚
三等 十圓 五枚
等外는모ー도루油一罐



◇期間 自九月十六日 至十月十五日

三菱電機株式會社
三菱商事株式會社
南鮮總代理店
群山府江戶町
湖南農具株式會社
電話四三七 一〇一八番

妊娠.産褥.授乳時의
VITAMIN "B"

SANKYO 三共

비타민缺乏은諸障害의因

비타민B의體內缺乏은 脚氣뿐만아니라 其他種種의疾患을誘發하고 我國民을 베룻하야 쌀을主食으로하는사람에게는 特히 警戒를要하는바이다。

다른境遇는 말할것업시 妊娠、産褥授乳時를 特히 檢討함에 비타민B缺乏에依한 諸障害를하자면 妊娠脚氣、産褥脚氣等極히만타 近代醫學의闡明하는바에依하면 上記境遇에잇서서 體內의비타민B消費量은 常時의三倍乃至五倍이므로 營養必須의榮養素不足缺乏으로 이르키는所以가 分明하여젓다。

비타민B缺乏에依한 障害實例

醫學文獻에依한 비타민B缺乏에因하는 障碍乃至症候의 主된것을도리보면 (가)食慾不進(나)嘔吐嘔氣 (다) 頭痛、頭重 (라) 最低血壓의下降 (마) 脈搏數의增加及不安定性 (바) 運動障碍 (사) 筋痙攣 (아) 便秘 (자) 浮腫 (차) 神經系의 障害等等이다。此等障害乃至症候는 脚氣病의一症候인것도잇스나 때로는 全部脚氣를 證明할수업는 境遇도잇다。特히 各種의消耗疾患、妊娠、産褥授乳時에잇서서는前述한바와가티 비타민B의 消費量은 三倍乃至五倍로 增大하고 따라서 그缺乏을招하는結果를 이르키는까닭이다。이러한境遇 特히 비타민B攝取에 不斷의留意를 要해야할것은 明白하다。

비타민B의攝取

비타민B는 各種食物에잇스므로 大槪는 食事에依하야 其攝取도可能하다 그러나 食物의選擇을 잘못하면 卽비타민B를 含有한食物을 適當히 攝取하지안코 或은 種種의原因에依하야 食慾不進하고 그때문에 所要의비타민B量이 體內에업는結果가 나타난다 或은 體內비타민B消費量의 異常增大에伴하야 그結果缺乏을 招致하는수가잇다。비타민B가一邊缺乏하면 食物로는 容易히 補充할수가업다。이러한境遇에 所謂비타민B를 多量으로 包含한藥劑의힘을 빌必要가 생긴다。

비타민B의歷史

現今의 비타민說이 學界에發表된것은 明治四十三年十二月(1910年)吾鈴木梅太郞博士의 오리자닌이 最初이다。外國에잇서서는 英의 풍크氏의發表를 嚆矢로한다 이것은 鈴木博士를뒤니여 約一年 191١年12月의일이다。卽 吾鈴木博士는 現今의비타민說을 硏究發表하야 오리자닌은 비타민B의 世界的始初로서 發賣되여잇다。

오리자닌은

이러한歷史를 가진오리자닌은 醫藥으로서 發賣以來 임이 約三十年을 經過하야 其間多數의臨床實驗과 製法의 改良에相副하야 그藥効品質에關하여서는 定評이잇는것이다。

오리자닌의製造者는 이榮譽잇는 歷史를保持하고 다시 光輝잇게하기爲하야 責任을갓고 그製造에 從事하고잇다。一定効力을 保證하기爲하야는 生物學的試驗을 製品마다 嚴重施行하야 他面貯藏에依한 品質効力의變化를 防止하기爲하야 特殊한製法을 完成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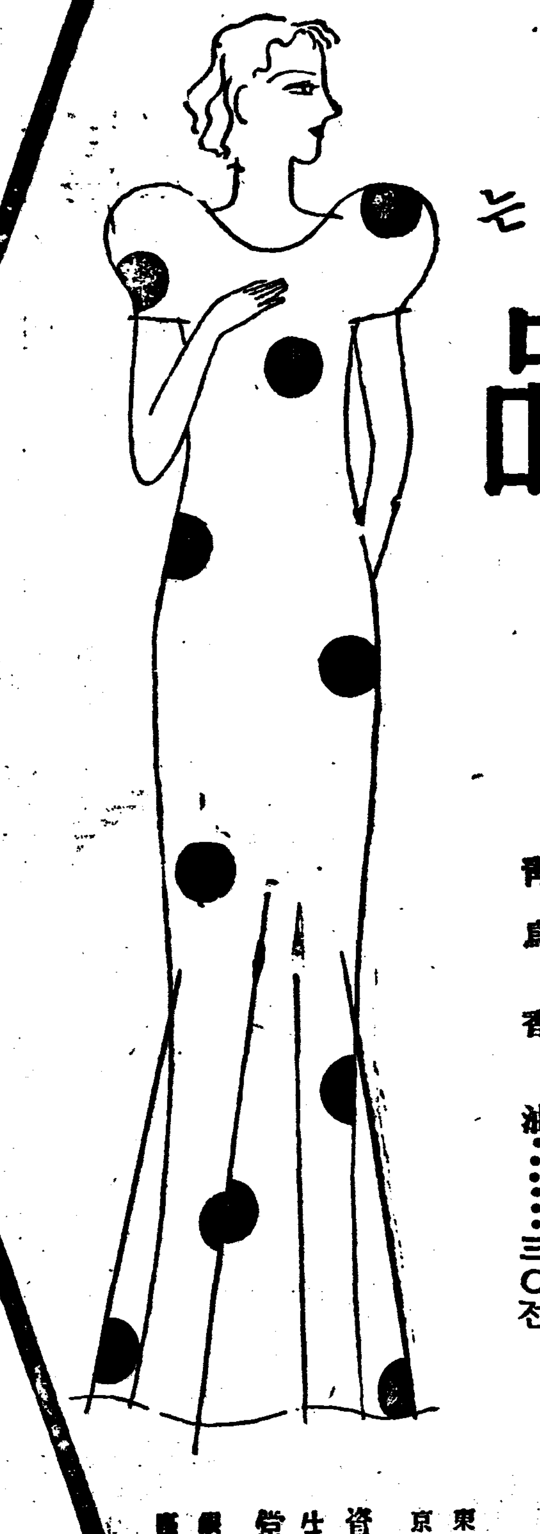
妊娠·産褥·授乳時와오리자닌

上記의歷史와 製造者의責任觀念의 綜合은表示하는 境遇에잇서서 그効力에對하여서도 多數의實驗報告로 明白히 斷言할수잇다。

卽 (가) 거이 妊娠嘔吐업시 (입덧) 苦痛을 밧지안는다。
(나) 食慾을增進하고 便秘를 佳良케한다。
(다) 脚氣의併發을 防止한다。
(라) 胎兒의發育도조코 生後에도 잘이잘잔다。
(마) 母乳의 分泌가 자못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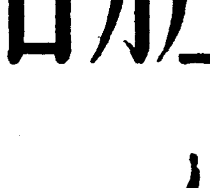
이모ー든 實驗에依하야 明白하게되고 製造者의責任에依하야 確實하게 되는것이다。이것은 卽小社가 妊娠、産褥、授乳時에 오리자닌의 應用을 推奬하는 所以이다。

ビタミンBの世界的始祖
オリザニン 오리자닌
粉末、錠劑、液、エキス、注射液各種。(說明書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알아볼수업게아름다워지는

青鳥化粧品



어떤化粧品이던지外見만으로서는 알수업습니다. 使用해보고야비로서 그眞否를알수잇습니다. 青鳥化粧品이야말로꼭당신에게滿足을드릴것임니다.

青鳥香水……五〇전
青鳥바니싱크림……三〇전
青鳥水白粉……三〇전
青鳥粉白粉……三〇전
青鳥頰紅、口紅……三〇전
青鳥포마ー드……三〇전
青鳥香油……三〇전

東京 資生堂 謹製

TAK

濕布 エキホス

包裝 一〇〇瓦 二五〇瓦 五〇〇瓦 二瓩

A—4⑲

本社接受水害救濟品 (九月廿四日現在)

物品合計 十二萬六千六百十點
穀物合計 二十九俵一斗二升一合

黃金町七丁目町會

衣 五一四點

金完俊 一六點 ▲高田文雄 五點
今村金太郎 八五點 ▲李永達 一五點
北村鐵 一二點 ▲姜春熙 三點
渡上ヨツ子 一二點 ▲安元喜 二點
閔泳敦 七點 ▲鄭應善 九點
金忠培 二點 ▲正木千代 三〇點
中谷とん 三點 ▲能田鶴吉 五點
堀原美治 五五點 ▲吳允善 九點
小澤萬市 五點 ▲渡上七龍 四點
永田操 五點 ▲金用伊 三點
丁李鎬 三點 ▲渡島房次 一點
金應鎬 二點 ▲大屋龍吉 二點
金斗植 一一點 ▲吉田勝次 七點
鄭億順 一三點 ▲金龍錫 二點
伊藤熊武 三點 ▲柳錫鳳 二點
林元五 四點 ▲崔鐘煥 五點
姜應洙 三點 ▲李奉童 二點
李丁鳳 三點 ▲千興順 三點
李春明 一九點 靴四足 ▲任福順 二點
李海鳳 六點 ▲崔載煥 五點
崔貞淑 一點 ▲金鍾容 二點
金順業 二點 ▲金相根 二點
朴順均 二點 ▲金景煥 二點
金興吉 四五點 ▲金奇植 八點
孫萬鳳 二四點 ▲許德潤 二點
鄭忠根 二五點 ▲申錫敏 四點
瀬立みつゑ 一五點 ▲李明順 米五合

新堂町四區 (西白蓮洞)

衣 五二二點

閔桂完 五點 ▲李承鉉 二點
李鍾根 三點 ▲李河汝 一點
嚴柱珏 一點 ▲李淳在 一點
宋德煥 二點 ▲朴永根 二點
辛忠敎 二點 ▲李潤善 一點
石泰煥 二點 ▲朴永根 四點
鄭用辰 一點 ▲李應祥 二點
金順泰 一點 ▲申欽宗 二點
李孔麟 一點 ▲諸鳳學 一點
朴容琦 一點 ▲金敎興 一點
元永模 三點 ▲李允成 一點
紹東默 三點 ▲李順奉 一點
金仁煥 三點 ▲朴春三 一點
馬昌奎 二點 ▲金今甫 九點
權永祚 二點 ▲金正起 一點
閔內斗 五點 ▲金寅洙 六點
朴鍾秀 六點 ▲安性鎬 二點
全錫永 一點 ▲高福萬 一點
韓仁燮 三點 ▲申昇 二點
崔相殷 一點 ▲石相南 一點
金浦基 二點 ▲李明山 一點
崔鼎根 二點 ▲金仁培 一點
李忠鎬 二點 ▲張泰元 一點
洪七星 二點 ▲李承護 一點
慶周鉉 二點 ▲金興洙 二點
金多閏 五點 ▲李康年 二點
李元載 一點 ▲崔雲龍 二點
宋寶範 一點 ▲石永鎭 一點
張基俊 一點 ▲朴範成 九點
金元康 一點 ▲張聖元 一點
金華根 一點 ▲金東熙 二點
崔永完 二點 ▲白化日 一點
朴昌浩 二點 ▲洪學植 四點
崔根勝 二點 ▲李起榮 一點
鄭漢昭 三點 ▲李成用 三點
李東聖 三點 ▲金得龍 一點
池龍雲 三點 ▲李春字 二點
安成基 二點 ▲金永道 二點
金聖福 一點 ▲金聖山 一點
鄭煥益 二點 ▲崔東鎬 三點
全明俊 六點 ▲李忠夏 三點
李姓女 三點 ▲蔡姓女 三點
李應煥 六點 ▲金明俊 一點
尹景求 一點 ▲李秉徹 一點
池鱗求 二點 ▲金昇圭 六點
李昌浩 三點 ▲朴昌亨 二點
李起昌 一點 ▲崔周相 七點
徐致祚 一點 ▲李昌五 一點
金浩根 二點 ▲李三俊 一點
金昌元 二點 ▲姜大熙 三點
宋華錫 三點 ▲金鼓植 四點
金敬云 二點 ▲韓啓東 四點
權泰用 一點 ▲金鳳根 二點
裵福鎔 二點 ▲文乃成 四點
李宗輝 二點 ▲南呂錫 二點
李三龍 一點 ▲朴聖福 二點
許三淵 五點 ▲諸炳俊 七點
林性貞 二點 ▲李英煥 五點
文義春 三點 ▲沈載德 五點
鄭京局 三點 ▲金聖泰 二點
鄭基模 二點 ▲李福順 三點
李敎相 一點 ▲徐廷均 一點
崔益相 二點 ▲朴錫根 一點
方熙周 二點 ▲尹姓女 一點
金建玉 四點 ▲張萬甫 五點
金善男 三點 ▲李仁三 三點
李承載 八點 ▲朴萬甫 四點
李顯龍 五點 ▲楊萬壽 二點
金石史 五點 ▲朴光甫 三點
金三成 一點 ▲崔完基 三點
高鍾順 二點 ▲張鳳奎 三點
李昌瑞 一點 ▲林淳榮 二點
李思鴻 八點 ▲朴寓俊 二點
李敎順 三點 ▲石先玉 四點
盧基德 一點 ▲劉漢瑱 三點
金益奎 一點 ▲金元植 四點
李興甫 二點 ▲成春奉 二點
金在熙 二點 ▲李英根 二點
金奉鉉 二點 ▲柳春根 二點
徐聖煥 一點 ▲李炳五 二點
李泰福 五點 ▲金祥鎬 二點
申福福 三點 ▲鄭創秀 六點
洪伊先 一點 ▲金錫子 二點
盧性女 一點 ▲鄭昌海 二點
李熙遠 一點 ▲金泰順 二點
金龍浩 四點 ▲李敬雨 一點
鄭忠求 六點 ▲權雲集 七點

貫鐵町町會

衣 二二九四點
米 四升五合

李海南 七點 ▲白潤華 二點
李彩雲 八點 ▲梁聖根 二點
李德圭 五點 ▲金元濟 二點
李銀玉 一點 ▲金福善 二點
李享根 八點 ▲李康南 三點
洪善均 五點 ▲尹雲湜 一點
金泰熙 七點 ▲下大純 一點
朴勝來 三點 ▲金東在 一點
金命熙 一點 ▲金奉東 三點
崔奎晩 一點 ▲韓沸鏞 二點
鄭鍾興 八點 ▲金文杰 四點
李元鎔 三點 ▲朴弘鎬 六點
金秦潤 一點 ▲朴基鵬 二點
韓相應 二點 ▲朴熙三 三點
金泰淑 二點 ▲張鼎基 七點
李允甫 五點 ▲金聖考 四點
金鎭洪 一點 ▲金顯濟 九點
金玉顯 四點 ▲白雲鶴 八點
李健浩 四點 ▲白敬善 一〇點
金鍾秀 七點 ▲申周淵 三點
姜敬秀 一點 ▲丁永球 三點
張仁秦 五點 ▲李敏鎬 二點
朴南基 一點 ▲白玉順 二點
文炳穆 三點 ▲朴基駿 三點
盧美堂 一點 ▲許信元 二點
清水宗太郎 二七點 ▲申植 五點
洪陳基 一點 ▲金貞子 一點
金貞淑 二點 ▲林仁相 八點
朴容三 六點 ▲吳享錫 六點
朴鄭淑 九點 ▲金花中月 四點
鄭聖俊 一〇點 ▲崔基鎔 七點
金潤順 八點 ▲崔鴻昌 二〇點
宋世德 七點 ▲朴基鴻 九點
金汝根 四點 ▲任哲淳 四〇點
崔相潤 一點 ▲張熙俊 五點
鄭淑子 九點 ▲孔氏 一點
朴學成 一點 ▲金慶水 四點
咸承栢 六點 ▲印善昌 一點
沈明淑 五點 ▲諸弼祥 二點
嚴千祚 二點 ▲金永珍 二點
諸鍾遇 七點 ▲朴鍾璿 八點
金順子 八點 ▲李進吉 一點
金泰順 三點 ▲田盛鎭 一點
閔泳珍 七點 ▲崔玉榮 五點
金貞淑 三點 ▲金聯 七點
玄錫杜 五點 ▲金鎭元 二點
劉根洙 四點 ▲崔一炎 八點
鄭德興 一點 ▲金晌主 一點
金玉橋 八點 ▲片德昌 五點
崔銀植 六點 ▲斗南興 五點
金貞烈 一〇點 ▲厚地熊 三點
郭鍾榮 三點 ▲朱千福 四點
全秀南 四點 ▲安商訓 七點
金東濟 七點 ▲李聖德 四點
申章均 四點 ▲鄭根興 二點
池錦紅 二點 ▲許 一點
金丙軾 六點 ▲張與錫 一點
池戶源盛 一點 ▲張萬甫 二點
林丙休 二點 ▲金梓善 二點
金元吉 二點 ▲金明昇 二點
尹公鉛 四點 ▲金晩權 一點
全主復 六點 ▲宋春先 三點
宋萬福 七點 ▲汶山旅館 一點
麗尚旅館 二〇點 ▲秦秉鎬 四點
黃鳳權 〇點 ▲沈和燮 五點
高永泰 二〇點 ▲金完永 五點
車光禮 八點 ▲崔相圭 三點
韓學鎬 一點 ▲黃貞子 五點
金福順 一點 ▲千聖根 二點
柳春子 四點 ▲三山旅館 一點
李春子 八點 ▲表定福 一點
朴吟逢 一點 ▲朱錫子 三點
金仁厚 四點 ▲安明心 一點
金貞植 五點 ▲全用淳 二點
朴勝誠 二點 ▲車九夏 二點
金紅錫 六點 ▲崔慶圭 九點
沈洙燮 一〇點 ▲金蘭芳 六點
金紅錫 一點 ▲李泓周 四點
陸湖根 六點 ▲鄭斗元 一點
平壤權 一點 ▲東亞旅館 三點
李斗鎔 一點 ▲高弼權 一點
白聖和 四點 ▲李圭暐 一點
姜義永 五點 ▲申延淑 一點
朴鍾哲 四點 ▲李德任 八點
鄭德興 一點 ▲金海秀 二點
宋濟洪 九點 ▲李培源 一點
張海實 七點 ▲申正休 四點
金昌翊 一點 ▲李花仙 一點
金氏 二〇點 ▲諸英淑 一點
金相德 八點 ▲李澤周 三點
金泰英 三點 ▲鄭泰亨 九點
金相德 一點 ▲金甲鎬 二點
金在秦 二點 ▲安相淑 五點
鄭淑子 一升五合 ▲洪思說 米二升

孔德町一區町會

衣 八一五點
米 七升二合

成演五 三點 ▲李萬鎬 一點
金好善 三點 ▲金寶淑 一點
金淳周 三點 ▲安南洙 二點
安南洙 一點 ▲朴文藩 二點 靴二足 一點
張鍾奎 四點 ▲宋大彦 五點
金在執 二點 ▲具昌植 四點
金順德 八點 ▲金順德 足袋五點
李圭照 二點 ▲林興釗 二點
林興釗 白米二升 ▲金玉點 二點

金榮一 三點 ▲鄭榮一 一點
韓永喆 二點 ▲朴元构 一點
崔泰成 五點 ▲張聲遠 一點
金基榮 米五合 ▲崔仁煥 十一點
李永泰 米四合 ▲鄭宗鳳 二點
金貞任 米一點 ▲金珍泰 一點
文允植 一足 ▲高漢植 二點
張基福 五點 ▲黃順國 一點
金致洞 米一點 ▲李氏 二點
徐丙浩 毛布一點 ▲黃康周 二點
安則光 四點 ▲崔石用 二點
鄭宗斗 二點 ▲李換祥 二點
金昌一 二點 ▲尹甲先 一點
全弘善 二點 ▲李順明 一點
吳圭熙 五點 ▲張裕燮 三點
嚴基俊 五點 ▲申說均 一點
李鉉禮 一點 ▲池允錫 二點
金點成 一點 ▲申士順 一點
鄭良木 靴一點 ▲李和榮 二點
鄭基錫 二點 ▲李春基 二點
朴容鎬 二點 ▲崔鍾英 五點
吳點用 三點 ▲鄭判成 二點
洪順熙 二點 ▲柳昌烈 二點
林炳龍 四點 ▲許錫 一點
朴貢遠 六點 ▲具年會 一點
南益 三點 ▲朴相鉉 三點
李載成 靴一件 ▲權斗植 五點
崔承武 二點 ▲元應允 一點
黃義大 二點 靴二件 ▲李錫斗 九點
李鼎五 一點 ▲許穫 二點 靴一足
韓泰洙 二點 ▲尹致道 二點
宋慶萬 二點 ▲張興燮 二點
張業 三點 ▲金鎭煥 二點
金炳祚 三點 ▲元應先 三點
崔慶植 一點 ▲金永植 一點
金泰雲 一點 ▲李榮應 二點
洪允錫 白米五合 ▲崔鎭台 四點
鄭貴鎬 三點 ▲宋洙榮 八點
裵貞壽 三點 ▲宋壽亨 二點
張東煥 四點 ▲朴壽容 白米五合
李順化 二點 ▲金用 一升
方海洙 二點 ▲金容九 一點 米
柳召史 二點 ▲吳永鎬 四點
李点童 二點 ▲金鍾榮 一點
李裕奉 一點 ▲申十俊 一點
廉敬模 一點 ▲尹奉得 二點
金龍煥 四點 靴 ▲廉台善 二點
吳永壽 四點 ▲金永壽 四點
崔承舜 一點 ▲李光裕 靴重三點
李基浩 一點 ▲朴勝轍 靴重三點
鄭益煥 一點 ▲崔光錄 一點
元永國 一點 ▲李有奉 靴重一點
李允成 二點 ▲李文元 一點
金鍾淳 二點 ▲金鍵泳 六點
鄭昌浩 五點 ▲中村和作 一點
文聖模 七點 ▲李勳用 二點 靴
李啓善 四點 ▲沈基男 十二點
金慶男 四點 ▲李東獸 三點
無名氏 六點 ▲李綱魯 二點
柳寅德 五點 ▲任義淳 十五點
鄭基俊 一點 ▲詳壽山 二點
韓龍雲 四點 ▲李大根 八點
金致順 三點 ▲崔順浩 米二升
鄭三釗 六點 ▲崔順浩 一點

孔德町三區町會

衣 二二一一點
米 三斗三升

朴德龍 四點 ▲金德燮 一點
金玉晟 五點 ▲劉聚奎 四點
金東爲 一點 ▲文秀吉 二點
趙東獻 二點 ▲梁壽曾 一點
姜容興 二點 ▲金潤相 四點
李長載 二點 ▲金壽錫 一點
李成大 一點 ▲洪鶴童 一點
尹元明 五點 ▲朴秉洙 二點
張用武 一點 ▲金壽德 一點
柳相變 三點 ▲馬南洙 四點
李仁南 三點 ▲朴明秀 三點
李乾奎 二點 ▲徐相沅 一點
李仁南 五點 ▲金秀德 三點
李点成 一點 ▲朴明秀 一升
金性仁 六點 ▲崔伯元 一升五合
趙德洪 七升 ▲李桂鴻 一升五合
金慶德 白米 ▲姜明秀 二點
南德熙 四點 ▲尹伯元 二點
梁順先 一點 ▲何民植 一點
洪永喆 三點 ▲鄭東喆 二點
李大鏞 三點 ▲兪昌煥 白米二升
李淳盛 五點 ▲崔敬喆 一點
洪順成 二點 ▲金泰振 二點
朴順根 一點 ▲李春浩 二點
辛九甲 三點 ▲金龍錫 二點
高相淑 二點 ▲李黃龍 白米一升
宋文浩 二點 ▲金九鉉 一點
梁潤植 二點 ▲鄭福成 一點
嚴桂鉉 一點 ▲閔丙哲 一點
柳珏 八點 ▲卞鍾和 一點
尹炳基 一點 ▲沈枝榮 一點
李九京 一〇點 ▲金宗倬 一點
劉德漢 一點 ▲鄭信基 九點
崔奎澤 三點 ▲金海收 一點
丁殷鎬 九點 ▲金榮泰 二點
崔鳳運 二點 ▲李寅涉 一點
張鍾燮 二點 ▲金學伊 二點
金應瑜 二點 ▲吳永福 一點
石然均 六點 ▲宋德和 二點
趙泰錫 六點 ▲安仁燮 二點
朱炳寶 二點 ▲李會駿 一點
崔道成 六點 ▲姜順成 三點
李丞培 五點 ▲曹麟煥 一點
李泰德 一點 ▲諸命善 三點
金東淳 白米五合 ▲朴相敏 白米二升
林三萬 一點 ▲金顯基 二點
田炳珍 一點 ▲全守鎭 四點
金在鎬 九點 ▲盧鳳熙 四點
東點俊 四點 ▲嚴景澤 二點
金永成 一點 ▲孫鴻伊 二點
朴文鐘 二點 ▲李東植 三點
李炳埼 一點 ▲孫應模 一點
鄭昌化 七點 ▲申錫祚 一點
朴銀石 一點 ▲金東潤 五點
朴成萬 三點 ▲金晋川 五點
林貴得 六點 ▲金忠煥 一點
李義煥 一點 ▲李義獸 二點
鄭昌憲 二點 ▲崔承安 五點
白南植 二點 ▲李鼎九 一點
金云先 一點 ▲李忠可多 二點
金天鳳 二點 ▲金春錫 三點
鄭永和 三點 ▲金龍文 三點
金學信 一點 ▲楊道鳳 三點
趙榮周 五點 ▲尹富淳 四點
南漢吉 三點 ▲楊上今 一點
崔永順 三點 ▲孔承周 一點
金明烈 四點 ▲林永煥 八點
金今龍 一點 ▲李容疇 四點
朴申起 二點 ▲申泰成 五點
金正賢 一點 ▲申泰成 五點
李七星 五點 ▲丁學仁 五點
高珍相 二點 ▲崔相云 四點
金景三 二點 ▲金成珍 五點
金春泳 二點 ▲宋寅鎬 一點
金根澤 二點 ▲申元植 一點
朴昌先 三點 ▲朴順元 二點
尹泰慶 二點 ▲嚴奉 一點
金永昊 米五合 ▲金德壽 二點
林炳學 五點 ▲皮炳浩 二點
丁炳鎬 三點 ▲黃守山 三點
朴基安 二點 ▲李泰元 一點
宋義植 一點 ▲嚴柱弘 二點
洪秉輝 一點 ▲李善載 三點
李亨鍾 二點 ▲丁亨燮 二點
朴春明 一點 ▲李東旭 二點
方泳成 二點 ▲鄭潤鎬 二點
高小國 二點 ▲金奉男 三點
李天雨 二點 ▲張永福 一點
宋在根 一點 ▲羅銀成 二點
姜熙淳 五點 ▲趙卯童 一點
徐惠憲 一點 ▲鄭泰永 二點
劉相學 五點 ▲李鳳錫 二點
簡義鉉 一點 ▲羅壽億 一點
尹興植 三點 ▲李敬善 一點
李成業 二點 ▲金致成 一點
陸在浩 五點 ▲崔錫泳 一點
卞者吉 二點 ▲劉載俠 二點
李源卿 一點 ▲崔道成 一點
田福萬 一點 ▲張世榮 四點
金泰熙 五點 ▲朴俊根 一點
李正秀 一點 ▲朴元龍 一點
金用鎬 二點 ▲金八用 四點
安文謙 二點 ▲양말 三個
朴大根 二點 ▲金致德 二點
池應南 六點 米五合 ▲安學中 五點
林春根 五點 ▲盧允集 二點
南相圭 五點 ▲洪在憲 一點
李實男 七點 ▲李炳沫 一點
金永換 三點 ▲嚴承學 二點
李元益 二點 ▲金漢龍 二點
趙載弘 二點 ▲鄭昌和 三點
金鎭德 五點 ▲蔡東秀 二點
金景煥 二點 ▲姜仁秀 米一升
金東一 一點 ▲金起錫 五合
李榮奎 五點 ▲金昌順 一點
朴基雲 一點 ▲朴華龍 二點
柳八石 二點 ▲李秀東 三點
朴順萬 二點 ▲梁濟元 四點
李在根 一點 ▲李起奉 二點
金黃龍 一點 ▲徐德宗 米五合
元世源 三點 ▲朴明鎭 米五合
崔相善 五合 ▲金大福 五點
李鍾連 一點 ▲李成仁 四點
安明姬 二點 ▲朴仁祖 二點
趙榮熙 三點 ▲梁英秀 七點
金鍾煥 二點 ▲李七福 三點
李成學 五點 ▲李亨圭 五點
盧昌奎 三點 ▲李亨圭 二點
金德洙 五點 ▲鄭命福 二點 一六點 米五合
金海俊 米一升 ▲安炳奎 二點
金寶安 一點 ▲鄭文五 五點

孔德町四區町會

衣類 一〇七〇點

金允培 一〇點 ▲殷熙穆 一點
梁興寬 二點 ▲朴容潤 五點
金正學 一六點 ▲朴容潤 七點
車永秀 三點 ▲郭泰佑 一點
朴晟鉉 一點 ▲鄭今龍 二點
宋基殷 三點 ▲吳榮均 一點
崔壽同 六點 ▲李辰甲 四點
全聖三 二點 ▲徐相珏 一點
李焙承 一點 ▲李聖元 二點
金俊興 一點 ▲李善慶 二點
金正鎬 四點 ▲朴昌煥 一點
李貞烈 七點 ▲金在石 二點
趙命壽 五點 ▲李有得 四點
鄭漢哲 三點 ▲閔正植 六點
金德煥 五點 ▲金順九 三點
宋炳學 二點 ▲李老獸 白米五合
金仁植 一點 ▲金德基 白米八合
李相文 二點 ▲洪鍾寬 二點
林喆永 二點 ▲李仁鎬 二點
徐源變 二點 ▲鄭致順 二點
崔貞植 四點 ▲金福壽 二點
李相夏 四點 ▲崔鐘寶 一點
兪炳喆 二點 ▲全聖鎬 一點
朱錫明 三點 ▲李相哲 四點
韓文源 四點 ▲柳鳳來 一點
金小成 二點 ▲金孟濟 二點
林周業 二點 ▲金顯益 四點
尹成奉 一點 ▲金正録 一升
劉相烈 米一升 ▲安順成 四點 米
金正錄 二點 ▲金泰完 二點
朴永善 二點 ▲龍俊錫 三點
李泰元 二點 ▲趙叔子 三點
金順祚 三點 米八合 ▲金聖泰 三點
尹長述 米八合 ▲朴順元 二點
韓百龍 六點 ▲沈千萬 三點
林光熙 米一合 ▲洪基成 一點
文達植 三點 ▲金聖煥 二點
李德漢 一點 ▲尹成均 一點
洪鍾憲 七點 ▲申先吉 五點
李德萬 米五合 ▲洪思禮 五合
金永植 二點 ▲李聖根 米
徐相根 一點 ▲李奉春 一點
林命天 米一升 ▲任榮宰 一升
東淳瑞 一點 ▲尹化寶 三點
盧永完 二點 ▲朴三鎬 一點
金仲彦 一點 ▲金元根 一點
李河寶 三點 ▲李春植 二點
吳能煥 二點 ▲文壽福 一點
成榮秀 三點 ▲安永三 三點
金相旭 一點 ▲安永澤 五點
申光秀 白米一升 ▲韓永秀 一點
朴点福 四點 ▲朴壽吉 三點
李巨福 二點 ▲尹炳壽 一點
李仁甫 二點 ▲金龍福 二點
李乾奎 一點 ▲朴宰福 二點
柳相變 一點 ▲李仲五 二點
張用武 一點 ▲李義卓 二點
尹元明 白米一升 ▲鄭炳哲 二〇點
李成大 一點 ▲金壽奉 四點
李点成 一點 ▲金興龍 二點
李仁化 四點 ▲姜点成 一點
金龍富 二點 ▲閔壽成 四點
金熙天 四點 ▲鄭淸天 一點
鄭成榮 三點 ▲徐秉宰 一點
李泰天 二點 ▲朴容錫 白米五合
林德萬 二點 ▲朴德九 四點

李德培 一點 ▲張基漢 一點
池昌益 一點 ▲尹周燁 四點
劉正点 六點 ▲李容珪 一點
尹光運 二點 ▲李斗榮 二點
千永洪 三點 ▲朴順成 二點
黃永詰 二點 ▲金應山 二點
白雲益 二點 ▲朴錫根 一點
崔大順 二點 ▲李承烈 一點
尹正男 二點 ▲金相根 一點
趙元燮 六點 ▲張元文 一點
洪淳龍 一點 ▲李斗榮 三點
崔永福 一點 ▲李守峰 一點
徐商烈 九點 ▲金鳳濟 一點
李聖學 三點 ▲柳鶴浩 三點
朴泰榮 一點 ▲李三福 一點
金吉成 三點 ▲李相潤 一點
林東善 二點 ▲崔善仁 二點
李德福 一點 ▲張致敏 一點
李九用 一點 ▲諸景淳 一點
韓鍾興 二點 ▲崔應善 二點
崔輝雲 二點 ▲林龍榮 二點
金文植 一點 ▲金鳳培 二點
南化模 一點 ▲諸景淳 一點
金東錫 一點 ▲朴大同 一點
朴敬石 一點 ▲金自斤 一點
李仁壽 一點 ▲金貞得 一點
金敬石 二點 ▲陳寅順 二點
南宮煥 二點 ▲吳泰成 二點
羅千汝 一點 ▲李長學 二點
尹泰浩 一點 ▲金容九 四點
金東浩 二點 ▲金永吉 二點
兪炳鎬 二點 ▲崔龍福 三點
李成五 三點 ▲白南鶴 四點
金敬西 二點 ▲沈忠欣 三點
金錫命 三點 ▲洪光振 一點
康昌業 一五點 ▲鄭光熙 一點
李雲龍 一點 ▲柳義一 四點
朴德文 二點 ▲金桂植 二點
南光植 五點 ▲金春芳 一點
崔容熙 五點 ▲盧相勳 四點
韓相善 二點 ▲金仁濟 四點
李學奎 一點 ▲元永南 七點
李應夏 一點 ▲崔永根 一點
李鍾浩 三點 ▲韓成仁 二點
琴容鍾 二點 ▲金岩于 五點
鄭仁元 二點 ▲金興烈 二點
諸春熙 一點 ▲梁在英 一點
金振燮 一點 ▲趙寬植 四點
崔其祚 一點 ▲鄭元和 三點
金在澤 三點 ▲金炳浩 四點
安聖澤 二點 ▲池相起 五點
金乙成 二點 ▲金德昌 五點
宋鳳順 一點 ▲鄭漢燮 二點
金泰奉 一點 ▲金應倍 一點
權晉奉 二點 ▲李昌東 一點
李演龍 一點 ▲張浣植 二點
朴聖汝 一點 ▲金今童 七點
李點熊 一點 ▲金鎭模 二點
安命益 二點 ▲李明龍 二點
金德潤 一點 ▲朴炳輝 四點
崔敬植 一點 ▲朴炳道 一點
姜雲成 五點 ▲金在鳳 一點
李明善 二點 ▲金在練 二點

安命益 三點 ▲李明燁 二點
崔敬植 二點 ▲朴順道 四點
金在九 一點 ▲金龍九 四點
金德潤 二點 ▲鄭在練 二點
金姓女 三點 ▲朴善哲 二點
李明善 二點 ▲金在鳳 二點
姜雲成 二點 ▲李鍾振 四點
崔敬植 一點 ▲張榮興 二點
安德潤 一點 ▲李鍾 四點
金在福 一點 ▲李敬安 二點
金亨吉 二點 ▲曹日煥 一點
韓貞淑 二點 ▲李桂月 一點
李昌根 二點 ▲林漢奉 二點
鄭奉龍 二點 ▲朴谷鎬 二點
金基萬 一點 ▲金雲景 一點
陳允玉 一點 ▲金裕七 二點
李壽男 二點 ▲史太淳 二點
任吉龍 一點 ▲金文壽 一點
金泰三 一點 ▲高炳昇 一點
李時榮 二點 ▲黃章熙 八點
安永善 二點 ▲千俊洙 一點
方文叔 一點 ▲姜泰雲 一點
盧載植 五點 ▲梁泰玉 二點
朴三成 五點 ▲鄭昌和 一點
權龍基 二點 ▲朴道善 二點
無名氏 一點 ▲韓漢錫 一點
鄭壽命 一點 ▲金泰芳 二點
朴奇煥 四點 ▲權寅贊 二點
金仁興 二點 ▲梁泰興 一點
崔貞植 三點 ▲李相哲 二點
權成雲 一點 ▲李殷林 一點
盧甲 一點 ▲金京烈 二點
趙寅植 二點 ▲崔鍾完 二點
權龍基 二點 ▲殷貴錫 二點
李斗煥 二點 ▲李德煥 二點
宋德洙 二點 ▲安順沫 五點
金俊 一點 ▲柳敎泳 二點
李鍾安 二點 ▲金順琴 八點
方孝直 一點 ▲金鍾雲 四點
權泰慶 二點 ▲宋鍾浩 一點
丁弘鎬 二點 ▲諸興秀 二點
金春善 二點 ▲李秉業 四點
金公三 一點 ▲鄭光朝 二點
金仁興 一點 ▲金大鳳 一點
具光會 二點 ▲具仁順 一點
崔基成 二點 ▲尹三孫 一點
朴元三 二點 ▲朴汝鎬 四點
無名氏 四點 ▲閔正秀 二點
李成萬 二點 ▲黃永秀 三點
金大元 三點 ▲宋鍾河 一點
朴龍珠 二點 ▲金炳姬 一點
朴玉山 二點 ▲羅浩成 二點
李壽碧 三點 ▲李柱成 四點
柳鳳來 四點 ▲姜相奉 三點
金鍾運 三點 ▲鄭元植 四點
李順吉 三點 ▲金可用 四點
金九基 一點 ▲孫泰山 一點
吳容煥 一點 ▲李鍾煥 二點
李聖男 四點 ▲朴容直 三點
朴承來 一點 ▲金元植 二點
李點龍 二點 ▲金大興 四點
李知涉 一點 ▲李季錫 二點
金福榮 二點 ▲李聖淵 四點
南相玉 四點 ▲李鍾榮 二點
朱元錫 二點
金相烈 二點
安聖洙 一點
金在慶 二點
朴上奉 四點
尹貞根 二點
李泰石 二點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四六〇	石炭	全南長興郡有治面	八月二十八日	木浦府山手町 代表者 水本要治郞 同務安郡 矢島春茂 長興郡長興面 西川象治郞
一三四六一	金銀鑛	江原高城郡杆城面	同	元山府山手町 代表者 郭相 李聖相 李基
一三四六二	金銀鑛	忠北忠州郡新尼面	同	京城府桂洞町 兪炳天 忠州郡周德面 李敏浩
一三四六三	金銀鑛	平北熙川郡新豊面	八月三十一日	熙川郡東倉面 代表者 金鍾鵬 同 金鵬燮
一三四六四	金銀鑛	慶北醴泉郡虎水面	同	醴泉郡醴泉面 李成學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氏名
九九一八	京畿富川郡五浦面龍仁郡遠三面	八月二十八日	淳昌郡仁溪面 鄭奇鎬
八五四二	黃海遂安郡泉谷面	八月二十八日	平壤府瑞店里 代表者 金寧超 遂安郡泉谷面 金
七四一五	忠南公州郡灘川面	八月二十九日	京城府西大門町 代表者 太田寬平次 同 金相福
一〇八三五	咸南端川郡北斗日面	八月二十九日	同 密昌町 吳榮善 京城府明倫町 吳龍善
一二五八五	全南咸平郡月也面羅山面	八月二十四日	金堤郡鳳南面 德眞 秀三
一一七六六	黃海平山郡龍山面	同	京城府堅志洞 韓順泰
八六六八	江原通川郡鶴一面	同	京城府 尹鶴淳 元山府旭町 尹明燮
一〇六五八	咸南安邊郡新茅面	同	高瀨儀平
八五一一	全北茂朱郡茂朱面	同廿五日	茂朱郡茂朱面 兒玉 篤藏
一二四五八	忠南公州郡牛城面	同廿六日	京城府漢江通 代表者 熊城鐵三郞 津田辰次郞
一〇〇八九	江原淮陽郡上北面 咸南安邊郡新茅面	同	瑞山郡音岩面 柳基榮
九四三九	咸南新興郡上元川面、下元川面、豊山郡安水面	同	利原郡南面 新興郡上元川面 代表者 姜台 金喆夏
七九四四	忠北忠州郡少味面	同廿七日	厚昌郡厚昌面 有田熊吉
一二〇二八	全北茂朱郡赤裳面	同	大邱府新町 代表者 金憲植 茂朱郡茂朱面 朴向植 利原郡南面代表者 姜台模
一〇七三〇	慶南統營郡一運面 東部面	同	兵庫縣武庫郡住吉村 山崎泰四郎
三一九六	江原高城郡西面	同	會寧郡會寧邑 代表者 岩村長市
一一四四三	忠北永同郡楊江面	同廿八日	咸興府黃金町 代表者 鄭京 咸興府西面 金能壽 咸興府業民町 洪寅杓
一一六五五	同	同	同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二九二	忠南燕岐郡全義面	八月廿五日	韓基鎬任意脫退함
八五四三	江原平昌郡平昌面	八月廿八日	地家清一任意脫退함
八五四四	忠北槐山郡道安面 曾坪面	八月三十一日	梁在烈任意脫退함
一二三五八	咸南長津郡新南面	八月卅一日	池源永任意脫退함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八八一〇	平北朔州郡朔州面	花園佐吉	鑛業代理人儀野勇을解任하고朔州郡儀野新吉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五日屆出
八一五一	全北金堤郡金山面	李敬玉	京城府冷泉町張龍植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五日屆出
七八七六	咸北淸津府富寧郡靑岩面	中野保一	富寧郡靑岩面取修之亮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五日屆出
一一三五八	咸南長津郡新南面	日本鑛業株式會社	長津郡新南面香月快策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六日屆出
一〇七二〇 一〇七二四	咸北鏡城郡龍城面	馬場兵太郎	淸津府明治町田中壽司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七日屆出
八六六三	京畿楊平郡青雲面 江原洪川郡南面	宮尾甲治	京城府東崇町白基三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八日屆出
一二二三四	全北任實郡聖壽面 任實面	申宗林	任實郡聖壽面丁李烏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八日屆出
一〇一八八	江原淮陽郡上北面 咸南安邊郡新茅面	日本鑛業株式會社	安邊郡新茅面糸永章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九日屆出
一二八七九	忠北沃川郡靑城面	鳥山平太郎	茂朱郡茂朱面城岡幸吉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九日屆出
九五九九	全南順天郡順天邑	金舜權	順天郡西面鄭鉉煥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九日屆出
八五三三	咸南新興郡下元川面	李禎弼	鑛業代理人林炳傑을解任하고京城府淸化町林鴻鉉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九日屆出
一〇〇九八	忠北堤川郡水山面 德山面	東鄕六郎 右衛門	堤川郡水山面朴正學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九月九日屆出

黃昏 (185)

韓雪野 作
安夕影 畫

교차선(交叉線)(八)

봉구의 말은 대번에 동필의 격노를 샀다.

『너도 주직이때의 끄나풀이냐?』

동필은 첫마디부터 버럭 성을 내엇다. 봉구가 자기를 뜨랴고드는것을 곳 알아채엇든것이다.

동필은 현보에게 불려갓다가 돌아오는길로 소변실에 들어갓다가 저편기계스뒤에서 주직이와 봉구가 이야기하는것을 보앗섯다.

그때에 발서 그는 자기의말을 하고잇는것이라고 엇전지직각되엿다.

그리지안허도 주직이들이요사이와서 더욱 자기를 감시하고경계하는눈치가 농후해저서동필은 더할나위업시 신경이 날카로워진판이엇다.

그런데 또 엇치데 멧치기로주임한테 불려가서 일쪽 뜻한일이 업는 영예롭지 못한 당부를 밧고보니 갈작이 자기의 신세가 말못되게 되어먹는것갓고 남들이 모다 그것을 비웃고 괘해하는것 가탯다.

주임이 아무 꺼리낌업시 자기에게 터노코 청을 대는것도 기실은 자기를 타락한사람으로 보는 까닭인것갓고 주직이가봉구를 질러보낸것도 자기를 전연이류로 인정하기때문이리라고 그는 생각하엿다.

그리고보니 모든사람이 한결가티 색안경을 쓰고 자기를대하는것 갓고, 두세사람이 모여서서 쑥근그리기만해도 엇전지자기의 후론을하는것 가탯다.

그는 주직에게도 봉구에게도 극도로 감정이 예민해젓다.

봉구와는 비교적 친근히 지나는 터이엇스나 그가 주직이와 래도를 가티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주직의 피리에 춤추는 괴뢰(傀儡)와가티 자기를 뜨랴고드는 그 줏대업는 행동이 견될수업시 미워낫다.

그가 보기에는 봉구는 주직의 책임에 들어 자기의보신을 잇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것가 탯다.

그것이 무엇보다 멸시할것이엇스며, 가증한것이엇다. 그것은 일종의 노례근성이라고도 생각되엇다. 만일 봉구가 제보신으로─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외려 덜미울것이엇다.

그래서 동필은 맘허두부터 봉구를 타매하는 어조로 나왓든 것이다.

그러나 봉구는 그것을 기피탐하려하지안코 넉즉이 우서가며 용대하엿다─

『이사람은 미첫나? 난데업는 주직이는 웨 끄려오나? 누가 어듸만나기나 햇단말인가?…』

하고 봉구는 싱글지을 우서가며 시침이를 딱다.

그는, 동필이가 주직이와 자기의 밀의를 엿본것을 전연알지못하엿다.

『만나지, 못해서? 엥히, 더럽다! 놈들!』

하고 동필은 침을 탁배앗고 쓰입을 쩍다시며

『하여간 네깟놈들 하고 월부할거 업다, 두고보면 알날이 잇슬거 아니냐?』

하고 억개로 숨웃쉬며 그만 가버리랴하엿다.

『대체, 자네 웨 이러는건가?』

봉구도 부지중 맘소리가 노파젓스나, 다시 한번, 감정을자제하며 동필에게로 따라섯다.

『웨 그러는거냐……악키더러운 놈들……』

『글세 이놈아 말을해봐』

『말할거 업다. 네가튼 놈들이 다업서저도 내랑심이 말라죽을리는업다』

동필은 이러케 말하는 순간 뼈마듸가 옷삭하는 가날핀 고독감(孤獨感)을 늣겻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결코량심을 버린 자거가 아니라고생각하엿다.

그누구보다도 직공의 실질적 리익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자기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엿다.

지금은 비록 침묵을 직히고 잇다하더라도 일단 유사시에는 그 누구보다도 과감히 이러나 뵈이랴고도 이 순간에는 맘에 다짐을 두엇다.

그리고 그리함으로써 지금자기패들을 악지가 딱 버려지도록놀래주리라고도 생각하엿다.

그리며 동필은

『너이놈들이 암만 그래봐야 잘부러 조잘대고 떠너는 햇내새마를거작구 업다. 가거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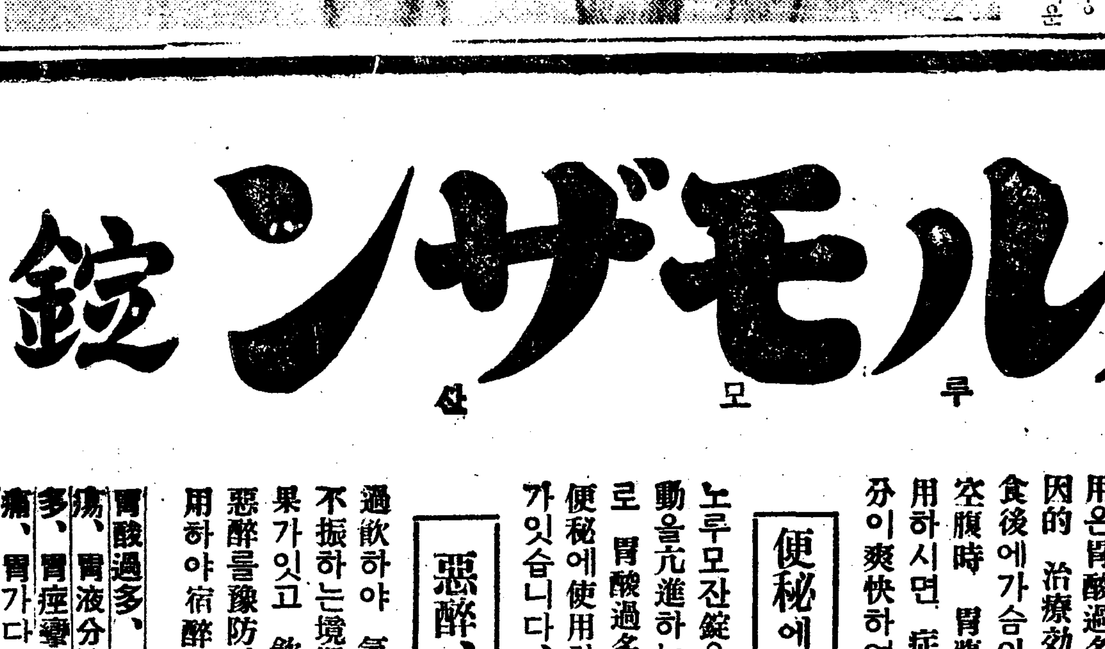
하고 앙연히 외쳣다.

『자네 웨 이리는건가? 대관절 말좀 해보게』

봉구도 불현듯 감정이 나서저도모르게 언성을 노핏스나 인차 고처 생각해가지고,

『허, 망할놈……사람두 미치지면 잠간일세그려』

하고 다시 뒤따를 슬적 롤어주엇다.



胃酸過多

制酸과 鎭痛

ノルモザン錠
노루모산

胃結膜의防護
胃酸의中和吸收
胃液分泌의整制

노루모잔錠特有의 右三大作用은胃酸過多症에對하야 原因的 治療效果를내는同時에 食後에가슴아리 醱氣 溜飮 空腹時 胃腸痛의境遇에 服用하시면 症狀이除去되여氣分이爽快하여집니다

便秘에效果잇다

노루모잔錠은 또腸의蠕動運動을亢進하는作用이 잇스므로 胃酸過多와件發하기쉬운 便秘에使用하야 催便의效果가잇습니다.

惡醉、宿醉에

過飮하야 氣分이나뿌고食慾不振하는境遇에服用하야 效果가잇고 飮酒前에服用하야 惡醉를豫防하며 飮酒後에服用하야宿醉를防止합니다.

胃酸過多、胃潰瘍、胃液分泌過多、胃痙攣、胃痛、胃가다루、便秘、醱氣、溜飮、惡醉、宿醉

【價格】 一日分 (三〇錢) 外に數種あり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道修町 關東代理店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本町

武田長兵衛商店